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2호
2023년 8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임운찬 보러 가자”...남가주 동문들 300명 할리웃보울 나들이



르오르

<관련기사=6, 7면>

미주 동창회, 각 지부 장학 사업 돕는다

장학금 주는 지부들에 2000달러씩 지원키로 ... “사업 활성화 도움 되길”

뉴잉글랜드,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주 등 10곳
매년 장학생 선발 1인당 1000~3000달러 지급

미주 동창회(회장 이상강)가 각 지역 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8월25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장학금을 주는 지부 동창회들에 2000달러씩을 지원해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부들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이상강(의대 70·사진) 회장은 “어떤 지부는 이제 막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 어떤 지부는 장학기금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 돈이 각 지부의 장학금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은 서울대 만이 아니라 모든 동창회의 주요 사업이다. 주는 사람에겐



나눔과 배려의 실천이고 받은 학생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며 또 어떤 학생은 나중에 성공한 뒤 그 몇 십배의 돈을 장학금으로 사회에 되돌려 주며 작은 나눔을 큰 나눔으로 꽃피워 내기 때문이다.

많은 적건 매년 장학금을 주는 서울대 동창회 지부는 뉴욕, 워싱턴DC,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시카고, 미네소타, 휴스턴, 하틀랜드, 워싱턴주, 북가주 등 10곳이다.

조지아 지부(회장 배혜영, 음대 79)는 오래 전 중단했던 장학금 사업을 5년 전 다시 시작했으나 장학기금 고갈로 현재 폐지 상태에 놓여 있고 코네티컷 지부는 고 유시영 동문 아내 유은주씨의 기부로 2000달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연 말에 첫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동문이 가장 많은 남가주는 직접 장학금을 주는 대신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모금한 돈을 모교발전기금으로 보내 모교

의 장학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지난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평의원 회의 사업보고에서 미주동창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SNU스칼러 장학금의 운영 방향과 장학생 선발기준은 열띤 토론 주제였다.

시카고 지부의 황치룡(문리대 65) 회장은 “성적과 리더십에 중점을 두다보니 최고 명문대 학생 일색인데 이 학생들은 대개家境이 여유 있고 여기 저기 받는 것도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해 다른 평의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평의원 회의가 끝난 뒤 연영재(공대 74) 뉴욕 회장은 따로 “미주 동창회 장학기금을 지역 동창회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상강 회장은 “어떤 지부는 출범과 동시에 장학사업을 시작해 30여년 경향이 쌓여 있고 어떤 지부는 성적 위주의 선발 규정을 바꾸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지부들이 서로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내실있게 장학사업을 하는데 미주 동창회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규모와 선발 기준은 지부마다 다르다. 서울대 출신 유학생이나 동문 자녀에게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문호를 개방해 대학(원) 재학생이나 대학 입학 앞둔12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생이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흑인 고등학생, 장애우 학생, 한국 헤리티지를 존중하는 학생 등을 포함시킨 경우다.

지난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한 워싱턴주(회장 임헌민, 공대 84)는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 자격에 못박았고 성적 외에도 리더십, 운동,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과 업적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워싱턴주립대(UW)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 1명을 특별히 포함시켜 6명을 선발키로 했으나 올해 우수한 지원자가 많고 동문들도 화답해 모두 9명을 선발해 1인당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면으로 계속>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1면에서 계속>

각 지부 장학금 지급 현황

임헌민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기에 IRS 택스 리포트의 인컴 액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인컴을 밝히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인지 동문 자녀는 한 분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동문 자녀들도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지부(회장 심회진, 음대 90)는 인성이 바르고 정직한 학생을 조건으로 지역 명문고등학교 2곳의 카운슬러에게 한인 2명, 흑인 2명을 추천받아 5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다.

휴스턴 지부(회장 김정환, 공대 80)의 경우 33년 역사를 이어 오면서 휴스턴 한인사회가 자랑하는 간판급 장학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액을 기존 1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올렸고 거기에 두 동문의 신규 기부로 2명을 더 선발해 모두 9명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특별히 장애우 학생을 포함시켰다.

미네소타 지부(회장 용정식, 농화학 86)는 서울대 유학생 3~5명을 선정해 1000달러씩을 주는데 작은 그 돈이 그들의 학위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주로 고려하고 보통 선정된 장학생은 동문회 학생 간사나 다른 보직을 맡아 동문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최진민, 공대 71)는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하면서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해 11명의 학생에게 2000~3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액수도 선발하는 학생 수도

**기부금 세금 공제 혜택 줘 지정장학금 늘려야
워싱턴DC는 외부 장학재단에 6만달러 기탁**



뉴잉글랜드는 장학금액수와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지부다. 사진은 2023년 장학금 수여식.

가장 많은 지부다.

최진민 회장은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따로 구분해 모집, 심사하고 금액도 커리어 단계별 필요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면서 “입양자, 유학생을 포함,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한국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실질적인 활용 계획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고 이재신 동문 가족의 기부와 김광수 장학위원장, 이현구(자연대 98), 신진우(농생대 04) 젊은 동문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 덕분에 6명, 9명, 11명으로 장학생 선발자와 액수를 늘릴 수 있었다”며 장학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워싱턴DC(회장 정세근, 자연대 82) 지부는 지난해 한미장학재단 동부지회에 6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기탁해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 이름으로 2개의 영구 장학금을 설립했다.

당시 함은선 장학위원장은 “20년 전 조수미 공연을 통해 4만 달러 장학기금을 모아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전문 단체를 통하면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수년간의 논의 끝에 2만 달러를 더 보태 6만 달러를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장학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서울대 출신 유학생이나 동문 자녀 2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각각 2000달러씩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싱턴DC 지부는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도 매년 5~6명 정도를 선발해 1000달러씩을 주고 있다.

뉴욕 지부는 당초 동문 유학생(3000달러)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관련 규정을 변경해 동문 자녀(2000달러)들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시카고 지부가 매년 1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 1인당 2000달러의 장

학금을 주고 있으며 하틀랜드 지부(회장 임소연, 음대 91)는 매년 2~3명을 선정해 1000달러씩 주고 있다.

각 지부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알아 보면서 확인한 것은 종잣돈 장학기금을 조성해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매년 일정 금액을 내겠다고 약속한 지정 장학금이 있어야만 장학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문들이 세금 보고시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RS의 501(c) 승인을 받아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의 매칭 기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워싱턴주 지부는 아예 2021년말 IRS의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한 후 장학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불과 2년 만에 기부 동문들의 이름을 딴 지정장학금을 1만달러 규모로 키웠다.

이상강 회장은 “미주 동창회가 지원하는 2000달러는 지정장학금으로 1명이든 2명이든 지부 선발 기준과 형편에 맞게 지급하면 된다”며 “장학금을 주는 각 지부 회장과 의 논의를 거쳐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제17대 미주 동창회의 첫 사업으로 각 지부 동창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제1 과제라는 이상강 회장의 평소 지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뉴욕 총회에 참석해 2000달러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가능한 자주 지부 동문회를 방문해 동문간 친목과 교류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미주 동문들 모교 나들이 ‘큰 기대’

**흠커밍데이 일정 확정
10월15일 서울캠퍼스
3박 4일 맛집 투어도**

오는 10월15일 모교에서 열리는 서울대 흠커밍데이 행사 일정이 확정돼 미주에서 참석하는 동문들의 큰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당일 공식 행사에 이어 미주동창회에서 따로 마련한 서해맛집 관광투어에 대한 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총무팀은 지난 8월 19일 이메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3 서울대학교 흠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14일 전야제, 15일 본 행사, 16일 골프 라운딩으로 이어진다. 또한 미주 동창회가 기획한 맛집 관광 투어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진행된다. 또 미주동창회 방문단은 행사 당일인 15일 오후 2시 총장실을 방문해 간담

회도 갖게 된다. 다음은 세부 일정이다. 전야제(14일)는 금난새 동문이 지휘하는 음악회로 삼익아트홀(강남구 학동로)에서 열린다. 전야제 행사에는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총동창회 임원, 관악경제인 회원, 미주동창회 동문 등 100명이 참석한다. 음악회는 오후 8시에 마무리 된다.

15일 본 행사는 서울캠퍼스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오픈 행사로 동문과 가족, 재학생, 교직원 등 2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총장실 예방, 캠퍼스 투어, 재학생 동아리 공연 관람, 음악회 등이 포함된다. 16일 진행될 골프 행사는 총동창회 집행부, 미주동창회 동문, 관악경제인회원 등이 참석해 남서울CC에서 개최된다.

미주동창회가 마련한 서해맛집 관광 투어는 전주 한정식, 광양 한우불고기, 영광 진짜 영광굴비, 서해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농이버섯전골, 더덕구이를 맛보게 된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운곡 람사스 습지 생태공원, 정약용이 유배됐던 다산초당, 가을 단풍의 백미를 보여주는 강천상 군립공원, 목포 유달산 등도 방문한다.

미주동창회 관계자는 “멀리 고국까지 방문한 동문들이 흠커밍데이만 참가하고 돌아오기가 아쉬워서 추가 투어를 마련했다”면서 “고국의 맛집을 함께 방문하며 우정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주 동문의 경우, 한국 항공편은 각

자 준비해야 하고 골프비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용, 중식, 석식을 포함해서 50만원(한화), 3박4일 관광 투어는 799달러다.

행사별 참석자 명단은 총무팀(양희주 대리, 82-2-879-8209, sindy@snu.ac.kr)에 9월15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미주 문의는 백옥자 17대 총무국장(818-395-1967)에게 하면 된다. 전야제 주소는 강남구 학동로 171, 3층 삼익아트홀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종신이사-플래티넘

“집행부에 큰 힘보태는 작은 실천”

조상근(법대69) 동문은 최근 5만 달러를 후원해 미주동창회 사상 3번째 플래티넘 이사가 됐다.

조 동문은 “미주동창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감동했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이상강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라면서 “크게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의 작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뉴욕지부 동창회장을 했던 것도 팬데믹으로 절반 임기를 채운 셈이었다”며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문들을 이끄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80년 대우 주재원으로 미국에 첫 발을 내딛고 수 십년이 흐르는 동안 사업에 집중하느라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기여하지도 못했다”며 “이번에 기회가 있어 종신이사도 신청하고 적극 참여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강 회장 집행부에 대해서도 몇 마디 말씀도 잊지 않았다.

“동창회가 선배 동문과 후배들이 나



조상근 동문(왼쪽)과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이 차이가 많아지고 의대나 법대나 문리대 등 단과대학별 전공도 다르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생활방식도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 17대 집행부는 잘 될 것으로 믿지만 ‘서울대인’이라는 한 지붕 아래 협동하고 단합하는 모습,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 선후배가 삶의 노하우를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 등 서울대가 1등 대

학이 듯, 동문들도 1등, 동창회도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근 동문은 법대 졸업 후 대우에 입사해 주재원 생활을 했고 이후 냉동 기술 세계 1위의 캐리어사에서 아시아 지역 이사를 거쳐 본사 구매 담당 이사로 크게 활약하기도 했다. 1991년 무역회사인 AMCO Inc를 미국에 설립했다.

AMCO는 석유시추선을 비롯한 해양 구조물 프로젝트에 쓰이는 부품과 자재 등을 취급했고 특히 영광 3~6호기, 울진 3~6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자재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외 한국에서 7여 년간 부동산의 투자와 경영에 종사하기도 했다.

그는 “350만 마일이 넘는 마일리지를 기록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 동창회장 재임 당시 팬데믹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 힘든 일이 많았으며 특히 의대동창회, 관악회와 보다 가까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종신이사



최재귀 (미대 63)

- 1963 서울대 미대 입학
- 1970 American University 입학 (MFA)
- 다수 그룹전, 개인전 2번, 워싱턴미술가 협회장
- 연방 법무부 그래픽디자이너
- 은퇴 후 지역 한인 커뮤니티센터 봉사



이채진 (문리대 55 남가주)

- 1959 정치학 학사
- 1966 UCLA 정치학 박사
- 한국 국립외교원 방문교수
- 캘스테이트 롱비치 사회과학대학장
-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 정치학 석학교수 및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부회장



김영용 (치대 55 뉴욕지부)

- 1955 서울대 입학
-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School of Dental Medicine서 교정 전공
- 1971 Dr. Jonathan Kim Orthodontics 개업
- 2021 은퇴

- 최경선 (농대 65 북가주지부)
- 임필승 (의대 54 필라델피아지부)
- 이영재 (상대 58 뉴욕지부)
- 손진태 (약대 67 뉴욕지부)

종신이사-골드

“40년 헌신 보며 후원 결심”

박종수 동문 골드 올라

박종수(수의58) 동문이 미주동창회에 추가로 5천 달러를 전달해 골드이사가 됐다.

박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수표와 함께 동봉한 메모에서 “미주 동문을 위해 미주 동창회가 수고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특히 백옥자 총무국장이 40여 년간 가장 수고를 많이 했음에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이상강 회장 집행부가 똘똘 뭉쳐 미 전역 동창회 지부 활

성화와 동문들간의 네트워크 강화에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며 “신임 집행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골드 이사로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동문은 1967년 미국으로 유학 와 미시간대학 동물병원에서 15년간 연구직으로 종사하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지니아 주 아베레트대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미시간과 LA를 오가며 부동산 및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에 200만 달러 상당의 토지 8천여 평을 기부했고 장학금 기부 등 약 8억5천여 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대 수의대는 박종수 동문의 모교



박종수 동문 부부가 최근 서울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동 1층을 박종수 홀로 명명한 바 있다. 또한 미주동창회에도 지난 2021년 1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구순 넘었지만 지치지 않는 헌신

이만택 동문 골드 등록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 미주재단의 이사장을 11년째 맡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부 이만택(의대 52) 동문이 미주동창회에 5천달러를 추가로 후원해 골드 이사로 등록했다.

이만택 동문은 “올해로 90세다. 11년째 미주재단 이사장으로 일해왔는데 골드이사는 해야 싶었다”면서 “다른 동문들의 종신이사 동참을 바란다. 미주동

창회가 더 굳건해야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택 동문은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무보수다. 자신의 출장을 위한 항공비, 숙박비는 물론 업무 식사비 등의 경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는 등 청렴한 봉사자로도 유명하다. 이런 솔선수범 덕분인지 이사장을 맡은 이후 지난 11년간 16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서울로 보냈다. 그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기록을 세워 달라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라델피아 예술박물관에 한국관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한 코리아 헤리티지의 창립멤버로서 자신이 소장하고 려자기, 병풍, 조선시대 의류품 등 10여

점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기념관 설립에도 헌신했고 서재필 재단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며 1999년 ‘헬렌 리’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간다의 모요 허스피탈 (Moyo Hospital)에서 3년간 의술을 베풀어 봉사과 헌신의 삶도 보여줬다.

이만택 동문은 뉴저지에서 캐피탈 헬스시스템 마취과 과장으로 20여년간 재직했고, 머서 메 디칼 센터 마취과 과장,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 수술 부실장으로도 오래 근무했다.

상훈으로는 서울대 2018년 동문 봉사상, 2012년 KAMA의 최고대상인 최재창상, 1998년 서울대 의대 동문상, 2007년 의대 미주 동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일자리 일부 사라지겠지만 결국 늘어날 것

SNU포럼 챗GPT 세미나 지상중계: 마이크로소프트 김영진 박사 강연

지난 6월10일 SNU포럼에서는 챗GPT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려 많은 동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픈AI사와 AI개발에 진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LLM소속 김영진(기계항공공학 98) 박사가 강사로 나서 '챗GPT와 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테크 대기업들이 AI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본주

의 논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 지에 대해서 예측했다. 다음은 강연 내용이다.



김영진
(공대 98)

챗GPT의 개요

우선 GPT의 첫번째 모델은 2018년에 나왔다. 오픈 AI사에서 만들었고 GPT2는 2019년, GPT3가 2020년에 나오면서 리서치 전문가들은 GPT3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일을 도와줄 AI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드디어 GPT4가 나왔는데 거의 기존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영화에서 보던 인공지능과 대화가 가능해졌고 비서 역할까지 도달했다.

GPT모델의 기본이 되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가르치는데 결국 기존에 가르치지 않은 일을 그냥 스스로 알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이머전 어빌리티'(emergent abilities)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작은 모델은 번역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순간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지는 등 없었던 능력이 계속 생겨난다. 이는 파라미터가 커지면 성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존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모델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갑자기 (뭔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모델은 결국 인공 제너럴 인텔리전스(general inteli)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런 모델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챗GPT가 기반이다.

기술관련 리포트

챗GPT4에 대한 리포트중 기존의 텍스

초안 작성-리바이스에 매우 유용
주고 받는 대화로 최고 결과 가능
거짓말 가능해 결과 꼭 검증해야



트 시험에 대한 능력을 검증한 것이 있다. 이전과 달리 GPT4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모델이 됐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캐릭터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줬더니 그림 속 캐릭터를 이용해서 글을 생성하고 요약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자동차 뒤에 다리미질을 하는 사람을 올려 놓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정확히 이해했다. 또한 카툰도 이해한다. 카툰을 보여주고 이것이 왜 웃기냐고 설명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아이폰에 VGA커넥터를 연결했는데 이미지를 보고 웃기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GPT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은 GPT4에 와서 압도적으로 줄어들어 20%까지 내려 앉았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텍스트만 갖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크게 발전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전에는 2021년까지의 자료만 있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GPT4는 스스로 답을 모르니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만약 필요한 다른 툴이 있으면 요청하라고 제시하면 '서치가 필요하다'고 물어오고 실제 서치 결과를 제공하면 이를 읽고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GPT4모델은 다양한 툴을 이용할 수 있

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LLM은 무엇

GPT는 라지 랭귀지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LLM중 한 모델인데 사실 AI는 매우 단순하다. 수식으로 단순하게 $Y=F(x)$ 에 불과하다. 여기서 기능함수인 F를 찾는 것이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기능함수(F)가 갑자기 어느 순간 AI가 된 것은 3가지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우선 GPU컴퓨팅이 2013년에 나오면서부터다. 기존 두뇌 역할을 했던 CPU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모델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다.

다양하고 거대한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고 더하고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GPU제조사인 엔비디아사가 이것을 빨리 착안해 매트릭스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면서 컴퓨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두번째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축적된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 시키면서 수학적인 포물레이션이 개선됐다. 여기에 층층구조인 레이어를 쌓으면서 갑자기 성능이 급격히 향상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파고가 바둑 기보를 학습해서 사람과 바둑을 겨루게 된 것이다.

LLM은 실생활에서의 의미

LLM모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코딩을 매우 잘한다. 코드 전체를 이해하고 로직을 예측하고 디버깅까지 해 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에 GPT4를 도입한다. GPT4가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기에 모든 업무가 가능해진다. 워드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프로포잘 초안을 써주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

챗GPT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우선 초안 작성(initial draft)에 매우 능하다. 또한 논문을 쓴 다음에 리바이스를 해달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굉장히 잘 고쳐준다. 프로그래밍에 강하므로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답을 준다.

또한 새로운 뭔가를 알기 위한 튜터로서의 역할이 뛰어나다. 영어를 배운 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울 때 '이것을 배우고 싶는데 무엇을 알아야 돼' 하면 필요한 것을 한번에 알려준다.

효과적으로 챗GPT를 이용하려면, 우선 요구 사항을 잘 설명해야 하고 답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화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 20% 남아 있으므로 챗GPT의 결과물은 검증해야 한다. 이제 AI덕분에 기존에 일하던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예전에는 사람이 모두 해야 했지만 GPT에게 일부 맡기고 검증하면 가장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제 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국어도 잘 이해한다.

김영진 동문은

1998-2004 공대 학사석사
2006-2013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013-1017 조지아텍 박사
2018-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 youki@microsoft.com

한국어 저서 최다 저술가...아직도 하루 8시간 넘게 작업

남가주 총동창회장 역임 차중환 박사

바른말 잘하는 유신 해직 교수 출신
UCLA연구교수 22년 봉직 후 은퇴
인권문제연구소 LA지회장 지낸 탁
'종북좌파' 누명도 승소해 진실 밝혀

“가족들은 해직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로 돌아가서 제자를 키우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죠.”

남가주 호남 인맥의 대부인 차중환(사범대 생물학과54) 박사는 유신시절 동국대에서 해직된 교수출신이다. 국정 교과서 생물책의 오류를 지적했던 것이 빌미가 됐다. 또한 ‘공해대책’이라는 잡지에 공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투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이를 인용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찍혔다.

당시 차 박사와 함께 쫓겨난 교수는 김동길(연세대), 한완상(서울대) 교수 등이다. 다행히도 차 박사는 지난 2006년 30년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회복 소송을 승소해 학교측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았다.

만약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차중환 박사도 김동길 교수나 한완상 교수 같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해직 직전까지 논문과 연구활동이 열심이었던 차 박사는 이 불행한 것이 ‘불행중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런가. 차중환 박사는 미국에 와서 UCLA연구교수(식물영양학 전공)로 22년간 봉직했다. 포스닥 과정하러 미국에 왔다가 해직되면서 아예 눌러 앉은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학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해직 때문에 돌아갈 자리가 없어서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얘기이지만 차 박사의 가족들은 이것이 ‘불행중

다행’이 아닌 ‘천재일우’ 혹은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한다.

연구 교수를 했지만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한 경제적으로 충분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엔 무궁화 식품점을 운영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 제대로 될 리 없었고 적자끝에 문을 닫았다. 뒤이어 한국이불을 판매하는 나성백화점을 LA한인타운 올림피아에 열었다.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강사까지 했던 2남1녀의 어머니 차순애씨의 사업 수완이 빛을 발했다. 민 가정의 비즈니스는 누구나 패밀리 비즈니스인 점에서 부부 중 누가 더 큰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성백화점은 성업을 이뤘다. 리스로 들어간 건물을 소유하게 됐고 동업자들과 시작한 부동산이 커져서 한인타운 한복판에 한 블럭을 갖게 됐다. 그야말로 한인타운에서 돈을 벌며 한인타운에 투자한 경우다.

이 블럭은 현재 한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J프로퍼티사에 의해서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섰다. 차 박사 패밀리는 앞으로 90여 년간 매달 토지에 대한 렌트비를 받게 된다. 이외 한인타운 몇 곳에 부동산이 있다.

차 박사는 “학자가 부동산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나. 하지만 세들어 있던 곳을 샀고 그 주위 몇 곳을 샀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투자했던 동업자나 지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드물다. 자기 일 열심히



차 박사 부부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찍은 사진.

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더라”고 회상했다.

차 박사는 또한 아주 부지런한 저자 중 하나다. 현재까지 수 백권(330권?)의 책을 출간했다.

1935년생인 차 박사는 한국 국회도서관에 등록된 저서가 그 정도다. 몇 년 전에는 출간했던 저서의 리스트만 모은 소책자도 만들었다.

그의 첫 책은 1964년에 출간된 고임준비서 ‘고임생물(조문각)’이다. 이후 그는 여러 권의 대학교재를 저술했다. 미국에서는 1985년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명문 고교와 명문대학’, ‘이민 자녀 교육’을 잇따라 출간했다. 첫 영문 저서는 1972년 출간한 ‘Radioecology and Ecophysiology of Desert Plant at Nevada Test Site’다.

이후 한인 이민가정에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명문대학과 자녀교육에 대한 책을 20여 권 출간했다.(1988~1994) 이후 이민정보, 교육제도, 통일문제, 북한 식물 및 생태계 관련, 북한 정책, 재외동포법, LA폭동,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 미주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미주 동포의 민주화 및 통일운동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매년 5~10권 정도를 출간했다. 현 재도 제주 4.3사건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차 박사의 일상은 매우 단조롭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이상을 책 쓰기에 할애하고 있다.

차 박사는 “2018년 쓰러져서 스텐트 수술을 받은 후부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 더 집필해서 한국 기록원에 공인된 최다 저서 집필자로서의 타이틀을 뺏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로서 자녀 교육에도 성공했다. 사범대를 나온 의미를 살려 ‘한미 교육연구원’을 설립했다. 예전에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세미나를 열었고 교육 관련 책도 출간하고 꿈나무 장학금을 매년 수십명씩 선발해 장학금도 줬는데 올해로 45회째 선발하고 있다. 또 몇 년전부터는 교육자를 선발해 페스탈로치 상도 수여하고 있다.

2남1녀 자녀 중 장남 윤호는 발정형외과 전문의로 활약 중이고 딸은 공인회계사, 차남은 LA시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차 박사가 세상에 바라는 것은 남북통일이다. 황해 재령 출신인 차순애 여사가 북한을 6번 방문했는데 결국 남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다.

차 박사는 호남향우회와 인권문제연구소 LA지부장(2002~2004)을 역임한 바 있고 전두환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종북좌파’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좌표찍기를 하고 괴롭혔던 주동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25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는 등 승소해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약력: 동국대 교수 (1965~76), UCLA 연구교수(1977~92),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장(1979~80), 남가주 호남향우회 초대, 2대 회장(1980~82), 평통자문위원(1983~),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장(1985~86), 6.15 미주 공동위 공동대표(2007), 민주평통 LA회장(2007~2009), 대통령 표창장(2001), 국민훈장 목련장(2005)

장병희 편집위원



지난 2022년 12월24일 차중환 박사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오른쪽이 차윤성 LA시 검사.

남가주 할리웃보울 가족의 밤 연례 행사

“이곳의 외로움과 고국의 그리움을 선선한 날씨와 임윤찬의 연주로 조금은 풀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평일 오후 임에도 300여 동문 참석

피크닉 끝나고 공연 관람 부부 동반 많아 '화기애애'

서울대 동문들의 연례 행사로 잘 알려진 할리웃 보울 여름 피크닉 행사가 올해는 한국이 낳은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 공연으로 지난 8월1일 열렸다.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경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임윤찬의 명성에 힘입어 평소 200여 명 동문보다 많은 300여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 오랫동안 만난 동문들의 즐거운 안부 인사는 웃음꽃으로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오후 4시부터 지정된 피크닉 장소(#14)에는 많은 동창회 임원들이 일찌감치 준비에 나서 시원한 음료와 다양한 다과로 동문들을 맞이했다.

김경무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마련한 티켓 300장이 모두 팔렸고 296명이 참석했다. 임윤찬 공연 때문에 부득이 주말이 아닌 주중이라서 참석률을 걱정하며 일종의 모험을 감행했다”며 “하지만 99%가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뤄 다행이다. 다만 직장 때문에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남가주 동창회는 이날 공연 티켓을 장당 30달러에 구입해 동문들에게는 도시락, 다과, 와인 등을 포함해 1인당 40달러에 판매했다. 분실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배포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등 운영의 묘를 더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친지나 친구 등과 함께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부부 동반이 특히 많아 분위기도 더 좋았고 호응과 만족도도 높았다고 덧붙였다.

피크닉이 끝나고 동문들은 할리웃보울 공연장 K섹션에 모두 모여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경험했다. 강미자(성악과 62) 동문은 “19세 어린 피아니스트의 신들린 듯한 광기에 가까운 현란한 테크닉을 보았다”면서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문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것도 매우 뜻 깊었다”고 밝혔다.

할리웃 보울에서의 ‘동문가족 야유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동창회의 연례잔치로 팬데믹 탓에 지난 2021년에만 열리지 않았다.

한 동문은 “주최 측의 철저한 준비와 기획에 정말 감사한다. 동문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수의대 동문들.



워싱턴DC 지부의 정세근(자연대 82, 오른쪽) 회장이 비즈니스 출장으로 LA에 왔다가 남가주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할리웃보울 임윤찬 연주회 소식을 듣고 자리를 함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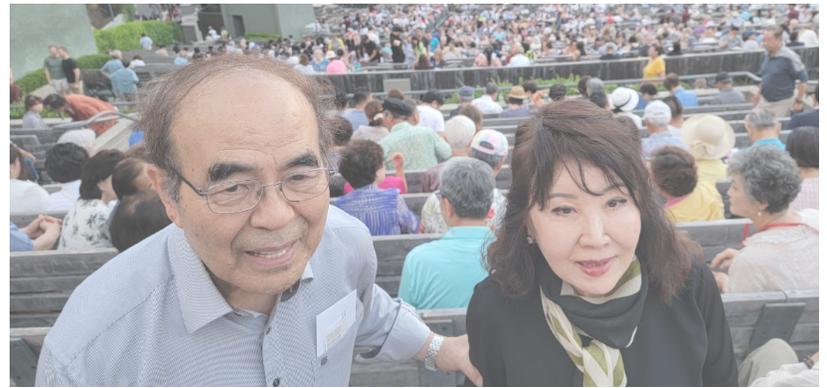
“임윤찬 공연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음대동문들



임윤찬 공연을 보고



강미자·이채진 동문 부부

강미자
(음대 62)

지난 8월1일 LA 의 자랑 Hollywood Bowl 야외음악당에서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실황을 보고 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음악당 전석을 꽉 채운 가운데 내노라 하는 피아니스트조차 엄두를 못내는 어렵고 난해한 이 곡을 19세의 어린 피아니스트가 마치 신들린듯 광기에 가까운 현란한 테크닉으로, 타고난 음악성으로, 하루 10시간이란 초인적인 노력의 결과로 모든 청중들의 가슴과 혼을 흔들어놓은 훌륭한 연주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든다.

라흐마니노프 자신 외엔 아무도 도전 할 수 없는 자독히 난해한 이 곡을 30년 후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르비치 만이 연주할 수 있었다면 이 곡이 얼마나 난해한 곡인지 짐작할수 있지 않은가?

이 곡을 나이 어린 한국인이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했고 어제 이곳에서 그의 연주를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가 한국인이라 더욱더 자랑스러웠다! 양쪽에 설치한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그의 얼굴의 땀방울!

특히 3악장 끝부분의 현란한 손놀림과 얼굴 전체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연주하는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모든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끝없는 박수를 보낼 때 내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야외 음악회 때 이런 흥분의 함성과 박수 소리는 처음 경험 인듯 했다.

덕분에 쇼팽의 ‘에튀드(Etude) 3번’(성악곡으로 ‘이별의 노래’)를 앵콜곡으로 들을수 있었다. 라흐마니노프 곡과 대비되는 극한 서정적인 곡으로 가슴을적시고 돌아왔다.

이곳의 외로움과 고국에의 그리움을 선선한 날씨와 임윤찬의 연주로 조금은 풀게 됐음을 감사드린다.

동창회가 활성화하려면 일단 모임이 재미있어야 한다. 좋은 선후배님을 만나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 생각만해도 가고 싶은 동창회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사나 취미가 같아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 같은 학교 출신을 넘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인생의 귀인’이 된다. 그래서 많은 동창회들이 여러 관심 분야의 동아리 소모임을 만들려 하고 적

극 지원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동문 영입을 기대한다.

미주동창회 29개 지부들도 다양한 동아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지부는 공부 모임이 가장 활발하고 어떤 지부는 등산을 즐기고 어떤 지부는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만큼 많은 동아리 모임을 꾸리고 있다. 미주 각 지역의 우리 동문들이 무엇을 하며 즐겁게 사는지, 각 지부의 동아리 소모임을 소개한다.

친목 다지며 건강도 챙기니 몸과 마음이 행복

뉴잉글랜드 산우회

뉴잉글랜드는 미국 동부의 등줄기인 애플레치아 산맥이 남북으로 달리고 있어 높고 낮은 아름다운 산들이 수 없이 많고, 철따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기에 일년 내내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산우회가 처음 발족한 것은 2018년. 김정선(문리대 66) 동문이 초대 회장을 맡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동문, 가족, 친지 등 15명이 뉴햄프셔주의 Mt. Major(1,784 ft)를 다녀 왔다.

파란 하늘, 청록 빛깔의 위니피사우키(Lake Winnepesaukee)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화이트 마운틴스(White Mountains)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정상 바위산에서의 풍광은 일품이었다. 마음이 통하는 동문들과 함께 오른 산이어서 더욱 좋았다.

그후 매달 정기적으로 산행을 해왔는데 평지를 걷는 주립공원이나 바다, 섬으로 갈 때는 보통 20명에서 많게는 3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연로한 동문들이 많아 10명 내외로 많이 줄었다.

하지만 때로 90세 넘는 동문들이 산우회 회원 다운 노익장을 과시해 문리대 50학번인 모정자 동문은 2021년 로드 아일랜드 앞바다의 작은 섬 블록 아일랜드 하이킹에 참여했고 공대 52학번 김대식 동문은 보더랜드 주립공원 트레킹에 참석했다.

윤용훈(공대 67) 산우회 차기회장은 “우리 산우회는 산행 속도가 비슷한 분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과 뒤쳐질까 걱정 안해도 되고 쉬고 싶을 때 같이 쉴 수 있다”며 “경치 좋은 주립공원 들레길도 걷고 바닷가 해변도 걷기에 산행이 부담스런 동문들도 편하게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진민(공대 71) 회장은 “산우회는 동문 누구나 가족, 친지와 참여할 수 있다”며 그동안 즐겨 찾던 산과 바다의 기록을 사진으로 보내왔다.



Boston Harbor Islands Nation & State Park: 보스톤 앞바다에 섬으로 이루어진 National Park으로 34개의 섬과 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인기가 많은 6개의 섬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어 여름 주말에 산우회 동문, 가족, 친지들과 함께 Hingham Shipyard에서 Island Ferry를 타고 두개의 섬(Pedocks Island와 Georges Island)을 돌아보고 온다.

Mt. Major: 독립기념일에는 뉴햄프셔의 Alton Bay 부근에 있는 Mt. Major를 오르는 전통이 있다. 파란 하늘, 옥색의 Winnepesaukee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White Mountain의 panorama를 즐길 수 있는 정상 바위산에서의 풍광은 언제 보아도 일품이다. 90도를 상회하는 더운 여름에 오르기도 하고, 하얀 눈이 뒤덮힌 설산을 오르기도 한다.

Block Island: 로드 아일랜드 남쪽 Narragansett 해안에서 12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섬은 비치, 트레일, 절벽, 등대, 항구가 한데 어울린 풍광이 아름다운 작은 섬이다. 특히 17마일에 이르는 해안선이 모두 공유지로 열려 있어 걷기 좋아하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Mt. Morgan(2,220 ft) 및 Mt. Percival(2,212 ft) Loop: 뉴햄프셔의 Holderness 부근에 있는 이곳은 30여년 전에 나온 영화 “On Golden Pond”의 배경이 된 호수가 보이는 산이며, 이 Golden Pond는 바로 Squam Lake 이고, 황혼에 보이는 호수는 그대로 황금빛으로 덮혀 있다. 뉴햄프셔에서 두번째로 큰 호수 Big Squam과 Little Squam Lake로 이루어져 있고, 산에서 내려다 보면 아름다운 호수의 경관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워싱턴 DC지부 테니스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1년 내내 매주 2번 게임·레슨 ... 폭우 땀 '맥주 담소'



박은경
(불어교육 03)

워싱턴 디씨 지부의 테니스 동호회는 2021년 7월 박상근 동문(법대 75, 당시 워싱턴 디씨 지부 회장), 구경훈 동문(제어계측 86, 현 테니스 모임 회장), 강형석 동문(기계공학 86), 이관후 동문(산업공학 87), 이주희 동문(음대 89, 당시 워싱턴 지부 총무)의 주도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정규 모집 절차 없이 동문들이 자유롭게 와서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운영해왔는데, 차차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단체 채팅방에 53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 참여자 53명

우리 동호회는 메릴랜드, 디씨, 버지니아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북버지니아의 야외 코트에서 일주일에 두 번(목요일 저녁 8~11시, 토요일 오전 8~11시)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매번 4명에서 12 명의 동문들이 나와 복식 게임과 레슨을 진행합니다.

야외 코트에서 모이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받을 법도 하지만 다들 열정이 대단해 폭우가 내릴 때를 제외하곤 일년 내내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에는 단체 채팅방에서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운영진은 코트를 예약하거나, 모임 날짜를 정해 알려거나, 테니스 대회를 포함한 여러 행사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때는 두 개의 코트에서 가볍게 랠리로 몸을 풀고 복식 게임을 진행합니다. 랭킹을 정하거나 실력에 따라 팀



2022년 가을 테니스 대회를 마치고 함께 한 동문들. 정기 모임 외에 매년 1~2번 테니스 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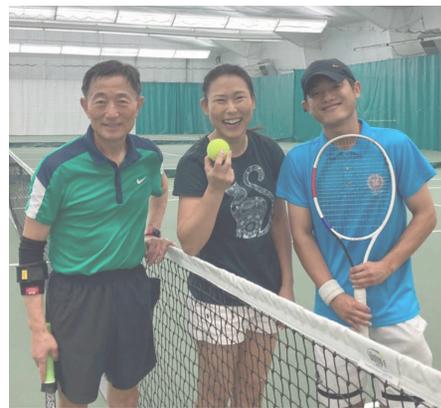
비가 내려도 굴하지 않고 코트를 닦아내고 운동을 시작한다.

을 나누는 등의 경쟁 요소 없이 친선 게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 외에 매년 1~2번(봄 and/or 가을) 테니스 대회를 열어 반나절 정도 함께 테니스를 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성대한 뒤풀이가 이어집니다.

동호회는 각 멤버가 참여 정도에 따라 참가비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종종 기부금을 내 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워싱턴 디씨 지부 동창회에서도 매년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진 헌신과 열정이 버팀목

여느 모임이 그렇듯 저희 동호회도 업 앤 다운이 있었습니다. 가장 활발할 때는 한 번에 16명까지 모이기도 했지만 첫 해



세대를 초월한 강준희(의대 71) 동문과 김종찬(동물생명공학 14) 동문의 테니스 단식경기.

겨울이나 매년 휴가철 때는 3~4명 정도만 나오는 고비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창립 초기부터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운영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구경훈, 강형석 동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코트에 나와 모임을 진행하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날씨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우천 예보가 있으면 맑은 날로 번개 모임을 추진하는 등 동문들이 언제 어디서나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하는 끈기와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 모임을 여는 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기 모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려 도저히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주에는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테니스 코치 동문이 레슨 해줘

우리 동호회의 또 다른 매력은 가족적이고 열린 분위기입니다. 학번, 성별, 구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파트너나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동문들도 꽤 있습니다. 위로는 강준희 동문(의대 71), 아래로는 김종찬 동문(동물생명공학 14)이 있습니다. 두 동문이 단식 대결을 한 적도 있지요.

우리 동호회는 테니스에 갓 입문한 테린이(테니스 어린이)도 환영합니다. 동



정기모임 후, 혹은 폭우가 내리면 맥주와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진다.

호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테니스 라켓을 잡아보지 못한 멤버가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상급자 동문들이 레슨을 해줬고 현재는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인 김상민 동문(체육교육 94)이 기초 레슨과 게임 코칭을 해주는 테니스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가족적 분위기 친목 모임 많아

운동 시간 외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매력 중 하나입니다. 회원의 생일이나 귀국 등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워블던이나 시티 오픈 등 주요 테니스 대회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호회 단체 채팅방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로 hilarious, inclusive, open, one, world Class, 품앗이 등을 말합니다. 우리 동호회의 성격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의 활성화는 동문회의 발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문회 임원 16명 중 절반이 테니스 동호회 회원이며, 이 중 서너명은 테니스 활동을 통해 동문회에 더 가까워지고 임원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성장 중인 우리 SNU-AA DMV 테니스 동호회,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워싱턴 DMV 지부 테니스 동호회 화이팅!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 동호회의 테니스 고수들. 왼쪽부터 이관후, 이영중, 강형석 그리고 구성훈 동문.

모임도 놀이처럼! 젊은 동문 영입 힘 모았다

우규환 IT위원장 주도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설키로

뉴욕

곽선섭 동문 집서 집행부 회의

가을을 알리는 입추의 중간 지점인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 30분, 파라무스에 위치한 곽선섭 동문(공대 61)댁으로 45대 집행부 멤버들이 속속들이 모여 들었다. 곽 동문집 뒷마당에는 두 부부가 정성 들여서 가꾼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다.

가정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긴, 50야드 골프연습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코네티컷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김영덕(공대 53)동문과 우규환(공대 60) 동문, 김준식(공대 85) 동문은 \$5 내기 골프 게임을 위한 연습에 한창이다.

거실에서는 집행부 회의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연영재(공대 74) 동문과 음식 배달을 맡은 김병순(사회대 82)동문, 새로 맞춘 동창회 깃발을 세팅하는 강병승(농생대 86)동문의 바쁜 움직임이 보인다.

이어 도착한 김정필(공대 71) 동문과 임창우(공대 79) 동문, 이영주(농생대 83) 동문까지 도착하자 집행부 회의는 바로 시작되었다.

“회의는 짧게, 식사와 놀이는 재미있게~”라는 초대자의 주문대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45대 집행부 하반기 계획은 친목과 화합, 젊은 동문 영입,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이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게 바로 “젊은 동문 영입”이다.

하반기 동창회 활동 집중 논의

어느 모임이나 목적이 있다. ‘서울대 출신’과 ‘뉴욕지역’에 산다는 동질감으로 모인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모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을 그리워하는 이들끼리 모여서 ‘지난 추억 나누기’일까?

프리아 파커 저 『모임을 예술로 만드는 법』에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임을 만드는 혁신적인 방법이 가득하다.

45대 집행부는 ‘동창 모임’을 통해 선후배 간의 거리를 줄이고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며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라떼는 말이야~”만 추억해서는 결코 젊은 동문 유입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또한 뉴욕지부 동창들과 함께할 ‘평범한 순간을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젊은 동문들의 유입구가 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



뉴욕 동창회 45대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8월18일 곽선섭 동문 집에 모여 집행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수석 고문을 맡은 김영덕 동문.



우규환 IT 위원장



연영재 뉴욕 동창회장

를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총괄할 IT위원장은 교수 출신인 우 동문이 맡기로 했다. 물론 딱딱한 회의만 한 게 아니다. 회의 중간에는 깜짝 이벤트도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뉴욕 동창회 고문으로 수고하실 곽선섭 동문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었던 것! 주는 이와 받는 이, 지켜보는 이, 모두에게 즐거운 순간이었다.

임원들 활기차고 폭넓은 대화

좌석마다 이름표가 놓여진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만큼 초대된 이의 정성이 가득하다. 초대받은 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할만큼 완벽하다.

세 분의 동문 아내까지 포함하여 총 15명의 참석자들 전원은 집주인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눈 뒤, 와인을 곁들이며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집행부 모임 역시 하나의 소통의 장이요. 서로를 알아가며 지혜도 배우고 전

수하는 모임이다.

수석 고문을 맡으신 김영덕 박사는 현대종합상사 미주사장과 뉴욕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하셨다. 우 교수는 19세의 나이로 초등학교 교사직을 맡은 이래 25년 동안 모교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학자이다. 그 외에도 국제금융전문가, 회계사, 한의사, 재무설계사, 세무사, 기업대표와 자영업, 부동산 전문인인 잡지사 대표 등 집행부 구성원은 다양한 직업만큼 대화의 폭도 넓고, 구성원 모두가 활기차다.

“업무에 지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 늘처럼 좋은 선후배 동문님들을 만나니 활기도 넘치고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승 사무총장)

평소 자주 못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과 교감을 나누는데 가장



뉴욕 동창회 수석 고문을 맡아 이날 자택을 개방한 곽선섭 고문이 감사패를 받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

좋은 인원은 8명에서 12명이라고 한다. 8명 이하면 다양성이 떨어지고 12명보다 많으면 발언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12명의 완벽한 집행부다. 새로 맞춘 뉴욕지역 동창회 깃발 아래 45대 집행부는 단합을 과시하며 8월 월례회 모임을 마무리했다.

글, 사진=이영주(농생대 83)

동문 보다 더 열심히 '동문 아내' 덕분에 25명 모였다

코네티컷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길엔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고 40년 넘게 살면서 늘리고 늘리며 가꿔온 마당 가득한 꽃밭은 눈 호강은 물론 마음까지 편히 쉬게 만든다.

그런데 집 안주인의 인심은 또 얼마나 후한지 손님 25명을 맞이하면서 불고기 40파운드, 닭고기 30파운드에 잡곡밥 그리고 갖은 나물을 준비했다.

다 굽지 못한 남은 고기는 손님들 떠나기 전에 맛있게 구워서 투고박스에 담아 주고 집 텃밭에서 키운 깻잎, 상추, 도라지, 썩갓 등 온갖 나물까지 한가득 싸주니, 어느 누가 이런 집 초대를 거절할까. 맛있는 음식 배부리 먹여 주고 편히 놀 수 있는 집 제공하고 돌아갈 때는 음식 보따리까지 손에 들려주는 집 주인 덕분에 코네티컷 지부에 젊은 동문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난 7월29일 예일대 인근 베다니에 있는 고 유시영(물리학과 68) 동문 집에 서울대 동문 20명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모였다. 동창회 일을 도맡아 하던 유시영 동문 타계 이후 침체에 빠졌던 동창회를 되살리기 위해 부인 유은주씨가 마련한 자리였다. 소재를 새로 파악한 동문들에게는 일일이 초대 엽서를 보냈다.

오후 4시부터 모인 동문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서던 코네티컷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김연준(농대 2000), 강주현(공대 2003) 동문 부부, 주공로(공대 68) 동문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학생 3명이 이날 동문회 모임에 처음 참여했다.

유은주씨는 서울대 동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동문 보다 더 동문회 활동에 열심히 이유는 남편 때문이다. 세상 뜨기 며칠 전까지도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관리를 했을 만큼 서울대 동창회를 사랑했던 남편이 애써 만든 코네티컷 지부 모임이 나서는 사람이 없어 흐지부지되는 걸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

“오늘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예일대에서 공부하는 문리대 직속 후배들까지 왔으니. 한 1년만 이렇게 우리 집에서 모이면 젊은 동문들 모임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일대 학생들은 “박사과정 동문이 3명 더 있고 포스닥도 3명이 더 있다”며 “다음번 모임엔 함께 오자고 얘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고 유시영 동문 아내 유은주씨 동문들 집으로 초대 '저녁 대접'

예일대 학생 3명도 처음 나와 갈 때는 음식 보따리 '한가득' 동문 자녀엔 장학금2000달러

“예일대 골프장서 모임 열어 장학금 모금 돕겠다”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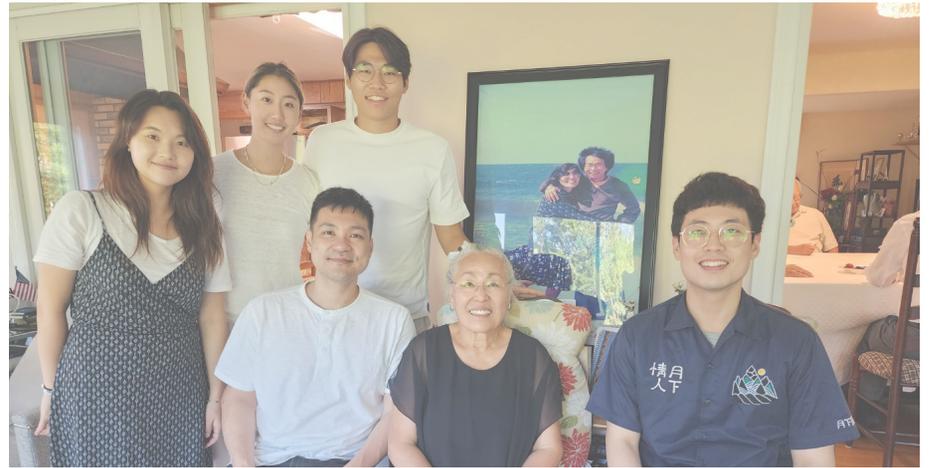


동문들이 돌아가고 난 뒤의 테이블. 맛있게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싸들려 보냈다.

유은주씨는 이날 코네티컷 명소인 팀블 아일랜드 관광도 제안했다. 바다 위를 수놓은 듯한 작은 섬들에 미국 부자들의 고품스런 대저택 별장이 있는 섬들로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 주차가 거의 불가능해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유씨는 자신의 밴으로 10명까지 태워가서 내려주고 자신이 나중에 픽업하면 된다고 노동절 전에 모시고 가겠다고 제안했고 여러 동문들이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었음은 물론이다.

유은주씨는 이날 남편 이름으로 장학금도 2000달러 내놨다. 동문의 고등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달러씩 줄게 확인데 그 또한 어떻게 하면 젊은 동문들을 나오게 할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다. “크리스마스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면서 장학금도 준다고 하면 자녀 있는 동문들의 참여가 늘지 않을까요?”



고 유시영 동문의 부인 유은주씨는 이날 예일대 박사과정 김홍준(물리학과 2012) 동문과 여차친 구, 포스닥인 신영재(물리학과 2007) 동문 부부, 김홍일(의대 2015) 동문이 모임에 처음 참석하자 문리대 직속 후배들이라 남편이 더욱 좋아했겠다며 따뜻하게 젊은 동문들을 맞았다.



뉴욕의 신영남 전 미주동창회장이 이날 코네티컷 지부 모임에 합류해 동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유은주씨는 2002년부터 예일대 인근에서 노숙자 사역을 해왔으며 그 공로로 2011년 코네티컷 주지사가 수여하는 ‘올해의 한국인상’을 받은 바 있다. 20년 넘게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몸과 마음에 새겨진 봉사정신이 동창회 활동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동문들은 코네티컷 지부 처음으로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 중심엔 역시 유은주씨가 있었다.

유은주씨는 “예일대 골프장은 아무나 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멤버십을 가진 지인 도움으로 거기서 노숙자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예일에서 친다고 하니까 아무리 비싸도 달려오더라”며 “우리 집이 골프장에서 20분 거리이니 골프 피는 받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면 충분한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네티컷 뿐 아니라 뉴욕, 뉴잉글랜드, 워싱턴DC 등 지역 동문들에게도 알리면 제법 규모 있는 장학금 모금 대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일대 골프코스는 미국 100대 클래식 코스에 포함돼 있고 ‘베스트 캠퍼스 코스’로 꼽힌다.

유은주씨는 “집이 멀어 못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1, 2월에는 그분들 사시는 동네 가까운 식당에서 모이고 여름과 크리스마스는 우리집에서 모이자고 했다”며 “제가 이러는 건 남편 살아생전 하려고 했던 일이고 그래서 남편 뜻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니 동문도 아닌데 나선다고 생각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동창회가 활성화하려면 열의와 애정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있어야 한다. 올 크리스마스 모임때 코네티컷 지부가 들려줄 동창회소식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날씨 만큼이나 환한 얼굴에 ‘웃음꽃’ 만발

캐나다 밴쿠버

동문 가족 등 50명 참석
게임 즐기며 여름 야유회

밴쿠버의 여름 날씨는 맑고 화창하다. 하늘은 눈이 부시게 파랗고 공원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시원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의 여름을 천국이라고 한다.

지난 7월22일 토요일, 날씨 만큼이나 환하고 밝은 얼굴을 한 서울대 동문들이 뉴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로워 흠파크(Lower Hume Park) 공원에 모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이니 인사를 나누는 얼굴 마다 웃음꽃이 피는 건 당연지사였을터.

행사를 준비한 성영주(간호대 86) 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아름다운 날씨 보다 더 아름다운 동문들 얼굴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특히 예상 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문 가족들이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 가족은 50명에 가까웠다.



지난 7월22일 열린 밴쿠버 야유회에는 50명의 동문 가족이 참여해 빙고 게임에 공 릴레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을 앞두고 단체촬영을 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들었으니 이제는 본격 게임 타임. 빙고 게임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고 공 릴레이 게임도 하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함성도 터져나왔다.

점심 시간에는 맛있는 한식 뷔페와 시원한 수박, 과일음료를 함께 나누며 애기꽃을 피웠다.

성영주 회장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동문들끼리의 소중한 교류를 느낄 수 있는 뜻있는 순간이었다”며 “오늘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넌센스 퀴즈와 커플 게임이 준비되어 더욱 유쾌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래플

(Raffle) 이벤트는 당첨이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가 동문들의 흥미를 자아냈다.

이날 야유회는 시상식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에 또 만나요.” 돌아서는 동문들 발걸음엔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풍성한 점심 ... ‘빵’ 터진 입담 ... 즐거운 게임

워싱턴주

50명 함께 한 야유회
젊은 동문들 새로 참여

워싱턴주 동문회(회장 임현민)가 지난 8월12일 시애틀 벨뷰에 있는 뉴캐슬 비치 파크에서 동문과 가족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뉴캐슬 비치 파크에서 야유회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아름다운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닌 레이크 워싱턴(Lake Washington)이 바로 옆에 있어 동문들 모두 좋아했다.

야유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임현민(공대 84) 회장 부부와 회계를 맡은 송은주(간호대 85) 동문 부부 등 여러 동문은 일찌감치 와서 음식을 준비하며 맛있는 냄새로 동문들을 맞았다. 임현민 회장의 부인 서인숙씨는 매년 야유회때마다 동문들에게 해물 파전을 대접해왔다.

지난 10년 쫓겨 구워온 이정관(농대 83) 동문은 올해는 총무 일로 바빠 ‘BBQ 동무’ 였던 송은주 동문 남편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와 동문회의 새로운 젊은 일꾼 이승윤(공대 90), 정은구(치대 92) 동문에게 아쉽지만 쫓겨 구워온 일을 넘겨야 했다. 해물파전, 불고기, 쫓겨 구워



워싱턴주 지부 동문들이 지난 8월21일 뉴캐슬 비치 파크에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날 야유회는 장학금 수여식도 겸해 장학생 가족과 참여했다.

리고 여러 동문이 준비해온 각종 음식들로 풍성한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이어 시작된 총회에서는 지난 8월 초 델러스에서 열린 2023 KSEA 에서 한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여하는 KSEA 특별 공로상을 받은 김재훈 동문과 오레곤 한인회가 수여한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받은 이명자 전 회장의 부군 이제선 Firstech LLC 회장의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에 동문 회장을 맡아 아낌없는 헌신과 리더십으로 동문회를 잘 이끈 이명자 전 회장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있었다.

이날 야유회에는 정유민(2011인문대) 동문과 양윤기(공대 85) 동문, 박한규(공대 91) 동문이 처음 참석했는데 정유민 동문은 참석자 중 가장 어

린 나이답게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다른 동문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박한규 동문은 딸이 MIT 바이오 학과에 합격해 이번 가을 학기부터 MIT에서 공부 한다는 소식에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양윤기 동문은 벨뷰에 집을 알아보다가 일정이 맞아 동문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처음에 말했다가 임현민 회장이 그게 아니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케줄을 포기하고 참석한거 아니냐고 묻자 금방 말을 바꿔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변해 동문들이 폭소를 터뜨리게 했다.

즐거운 게임 시간, 빙고를 맞춘 동문이나 못 맞춘 동문이나 모두가 선물 하나씩은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임현민 회장은 아들이 개업한 치과에서 제공한



지난 8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여하는 KSEA 특별공로상을 받은 김재훈 동문.

치실을 덤으로 선물했다.

이날 야유회에서는 장학위원회가 선정한 2023년 장학생 9명 중 4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해 워싱턴 동문들을 대표해 임현민 회장이 수여하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받았다. **취재=이정관(농대 83)**

미국 가정 식탁을 한국 딸기로 정복하겠다

경영학 교수에서 농업 기업가로 변신한 문종범 동문

“북가주는 물론, 시카고, 달라스에 이어 동부에서도 파트너십을 통해 달고 맛있는 한국 딸기로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만 가르치다 자신이 직접 경영자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경영학 박사가 서울대 동문인 문종범(51) ‘닥터문프로듀스’ 설립자다. 그는 보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로 11년간 후학을 지도했다.

IT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교직과 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많지만, 학계를 떠나 완전히 분야도 다른 곳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경영학 이론을 실제 경영으로 밀바닥부터 구현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 문 박사의 ‘닥터문프로듀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업 기업이다. 특별히 한국 토종 딸기를 미주에 보급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있다.

그가 IT기업도 아닌 농업 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른 기업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직을 그만두고 한국의 IT기업 임원으로 일할 당시인 2019년 8월 미국에서 지인과 딸기를 먹으면서 ‘왜 미국 딸기는 맛이 없을까’ 하는 단순한 의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사업 모델은 매우 단순했다”면서 “농업 기업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엄두도 못냈을텐데 매우 쉬워 보였기 때문에 겁 없이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당초에 생각한 사업 모델은 컨테이너로 한국 딸기 모종을 들여다가 여기저기 농장에 보급해 그 수확물을 마켓에 팔면 되는 것이다. 경영학 전공자답게 훌륭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해 사업에 성공하고자 했다. 지금은 한국 딸기의 미국 재배에 성공해 ‘농부’라고 불리는 것을 ‘인정’으로 여기며 즐기지만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맛있는 딸기를 미국인들에게도 맛있게 하자는 욕심에서 시작했다. 경영학자로 제자들에게 가르쳤 듯이 맛있는 딸기를 사먹지 않을 미국인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다.

미국 딸기가 맛이 없는데 마켓마다 팔리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 다음이다.

“미국 딸기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로 분류돼 한국 사람처럼 날 걸로 먹지 않고 샐러드에 드레싱을 얹어 먹으니 굳이 맛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한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했다. 다른 일반적인 ‘농부’들은 엄두도 못낼 일로 성과를 냈다. 진입 장벽적인 종자 보호권 등록, 조직 배양묘 도입, 재배 환경의



연방 농무부에서 최초로 한국산 딸기 종자특허를 얻은 문종범 박사가 옥스나드 농장에서 2년 여만에 재배에 성공한 한국산 품종인 ‘금실’ 딸기를 들고 있다.

맛있는 한국산 딸기 현지화에 3년 ‘미국 딸기 왜 맛 없지’ 가 창업 계기 기술 없어 발품 팔며 처음부터 배워 ‘로케이션, 로케이션’ 현업서 실감도

극복에 문 박사는 성공했다.

어려움도 많았다. 딸기 나무를 만드는 육묘과정을 위해서 미국 기업과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없는 답답한 상황도 딱딱 뜨렸다.

“나중에 직접 찾아가 보니 딸기만 연 3억 달러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몇 그루 갖고 와서 파트너 하자고 하니 만나 줄 이유가 없었죠.”

단기필마로 무턱대고 찾아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거래는 이뤄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너무 막막했다는 기억이다. 이론적으로는 기업끼리 파트너, 협조, 거래, MOU같은 일이 이뤄지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는 것. 문 박사가 농업 기업들의 규모를 잘 몰랐던 탓이다. 요즘은 한국 농업도 기업화가 이뤄졌는데 이걸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식물이 미국에서 재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있다. 생태계나 토종 동식물이 교란돼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난스러운 정도다. 그래서 문 박사의 경우, 연방 농무부에서는 종자 등록 등 절차를 마쳤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는 지’까

작됐다. 연평균 기온과 습도 정보를 갖고 농업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직접 겪어 보니 기후는 데이터랑 매우 달랐다. 평균 데이터 정보로는 재배가 어려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영학에서 사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로케이션(location), 로케이션’의 의미를 말이죠.” 캘리포니아 딸기 농사는 유난히 옥스나드 지역에 몰려 있다. 이유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딸기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나 자재도 구하기가 쉽다.

옥스나드 농장에서는 딸기 나무 240 그루를 갖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7천 그루가 됐다. 비닐하우스 한 동에 불과하지만 이제 곧 7만 그루, 70만 그루가 되고 그러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해진다. 또 미국이 넓기 때문에 딸기 특성상 유통라인이 길어지면 신선도가 떨어져 버릴 수 밖에 없어서 지역별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여러가지 성공 요인을 꼽았는데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제 노력은 겨우 10%인데 주위에서 저를 도와준 분들이 90%가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문종범 박사의 좌충우돌 농업 기업 도전기는 미주 중앙일보에서 ‘서울대 박사, 미국 농부되다’라는 코너로 매주 월요일 6면에 게재되고 있다.

약력

- 보스턴대학교 학사
- 서울대 경영학과 석박사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업계 1위 ‘와이즈와이어즈’의 글로벌사업본부장
- 닥터문프로듀스 창업
- 이메일 jmoon717@gmail.com

지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쉽게 이민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과정을 겪고 이민에 성공하는 것과 같이 한국 품종 딸기의 이민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첫 시험 재배는 빅터빌 사막에서 시



미주 한인 채널인 KBS아메리카 방송에 출연한 문종범 박사(화면 캡처).

Half Time 에 만난 새로운 세계-탱고(후편)

탱고가 배우고 싶어 아르헨티나 석달 살이

워싱턴DC 지부 이주희(음대 89) 동문은 지난 6월 열린 서울대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서 본국의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워싱턴DC지부 총무를 맡아 뉴스레터를 만들고 각종 소모임에 앞장 서 지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원고 청탁

도 그랬다. 탱고를 배우려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석달을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원고를 부탁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정성껏 쓴 글을 보내왔다. 이주희 동문의 탱고 입문기 전편에 이어 아르헨티나에서의 ‘탱고 배우기’ 석달 살이를 소개한다.



이주희
(음대 89)

아메리카 대륙에 25년 이상을 살면서 멕시코 밑으로는 가본 적이 없던 내가 ‘탱린이’ (탱고 어린이) 생활 1년 만에 아르헨티나행을 결심한 데에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하며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 어쩌랴.

작년에 한국에서 돌아와 내가 사는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서 있었던 아르헨티나 탱고 특별 워크샵에 참석했다가 크게 감동받았던 Juan Cantone이라는 마에스트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하는 1월 1일부터 그분의 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한 달을 머물면서 일주일에 세 번 씩 Juan 과 그의 파트너인 Virginia Cutillo 에게 개인 레슨을 받기로 일정을 미리 잡아두었다.

타국과 타주 출장으로 접철된 인생을



이주희 동문의 탱고 선생님 Juan Cantone과 그의 파트너 Virginia Cutillo.

살아온 나, 이제는 이력이 날만도 할텐데 짐을 싸는 것은 항상 어렵다. 집 밖에는 눈이 쌓여 있고 집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불이 반짝거리는데, 하늘하늘하고 짙막한 여름 옷들만 찾아 짐을 싸는 것이 이상했지만 하루 출장을 가건, 한 달 여행을 가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건 모두 가져가는 편이라 어느새 내 수트케이



밀롱가에서 만난 반도네온 선생님과 탱고를 추는 이주희 동문.

스들은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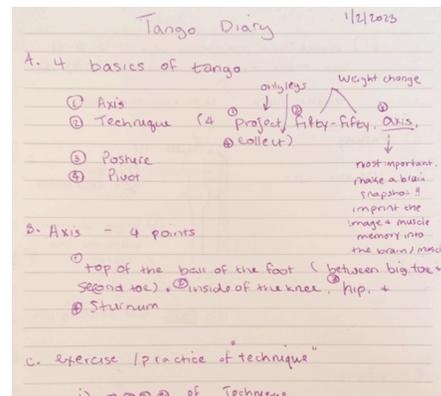
커다란 일은 쉽게 잘 저지르지만 세세한 준비는 늘 닦쳐서 벼락치기로 하는 편인 나는, 공항에 앉아 부에노스 아이레스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아르헨티나와 부에노스 아이레스 여행 가이드 eBook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공항에 도착해서 다행히 아직 터지지 않은 수트케이스 세 개를 끌고 나와 택시를 잡았다. 일반 택시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신기하긴 했지만, 산텔모까지 미국 달러 40불에 가주겠다는 택시기사의 차를 탔다. 살짝 비싼 것 같아 흥정을 할까 했지만, 피곤이 앞서서 군말없이 타고 말았다. 지갑에서 20불 짜리 두 장을 꺼내 손에 쥐고 차 밖 풍경을 감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나보다. “도착했다” 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들짝 깨서 차비를 건네고 택시문을 열었는데 기사가 마구 화를 내면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 뭐라고 빨리 말을 한다. 막 잠에서 깬데다 너무 크게 화를 내 상황과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말인 즉슨 내가 20불짜리 한 장과 10불짜리 한 장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당황해서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고 말하고 모자란 20불에 10불까지 없어 졌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당한 첫 속임수였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택시기사들의 속임수이고 미국에서 쓰는 우버 앱을 거기서도 그대로 쓸 수 있고 12불에서 15불

이면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미리 여행 준비를 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명칭 비용’ 이라고나 할까.

종종 아르헨티나가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밤에 혼자 다니거나 혼자 생활하는데 신체적인 위험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은 현지인들조차도 늘 경계하는 게 일상 모드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내는 동안 나



눈물로 적어내려간 이주희 동문의 탱고 레슨 노트 필기.

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내 손에 들고 있지 말라” 거나 “백팩을 뒤로 매지 말라” 는 주의를 자주 받았다.

커피샵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아무 일 없는 한국, 좀도둑 때문이 아니라 뒤에 서있는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백팩을 앞으로 매는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내다 왔던



첫 반도네온 레슨

내게는 따뜻~한 온탕에 있다가 아무 준비없이 냉탕에 퐁당 들어간 느낌이였다.

떨떠름한 경험이긴 했지만, 그게 나를 동면에서 확 깨게 하는 역할을 한 건 확실했다. 짐을 풀기 무섭게 나는 첫 탱고 개인 레슨으로 향했다. 내가 어느 정도 탱고를 배웠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진지하게 대화를 한 뒤 레슨이 시작되었다.

사실 나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또 뭘 더 잘 알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레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다.

한 시간 반 이상의 첫 레슨 받고 느낀 건 1) 그동안 너무 연습을 안했다 2)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 3) 피아노 전공하던 예원, 예고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보다는였다.

레슨에서 돌아와 밥도 안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촌스럽게 눈물이 났다. 노력없이 레슨만 받으면 다 될 것처럼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을텐데 웬지 고생문을 돈 주고 활짝 연 것 같은 느낌이였다.

다시 불을 켜고 일어나 앉아 오늘 배운 걸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그렇게 레슨을 받을 때 마다 눈물 찢끔 흘리고, 노트 필기를 하고, 돌아와서 복기하고, 연습하고 또 하기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 아무리 연습을 해서 가도 “왜 연습을 안 해 왔냐” 고 꾸지람을 들을 때가 더 많아서 이건 뭐 거의 예원 예고 시절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라흐마니노프 에튀드를 연습하다 “선생님, 저는 손가락 관절이 일반인이랑 다르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런 운지법으로 칠 수가 없어요” 하던 것이 “선생님, 저는 몸이 일반인이랑 달라서 그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면서 내 뱃심만으로 pivot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나이 50이 넘어서 레슨 받다가 선생님한테 혼

학생 처럼 공부하고 전세계 친구도 사귄다



매일 요가 스튜디오에 가서 혼자 연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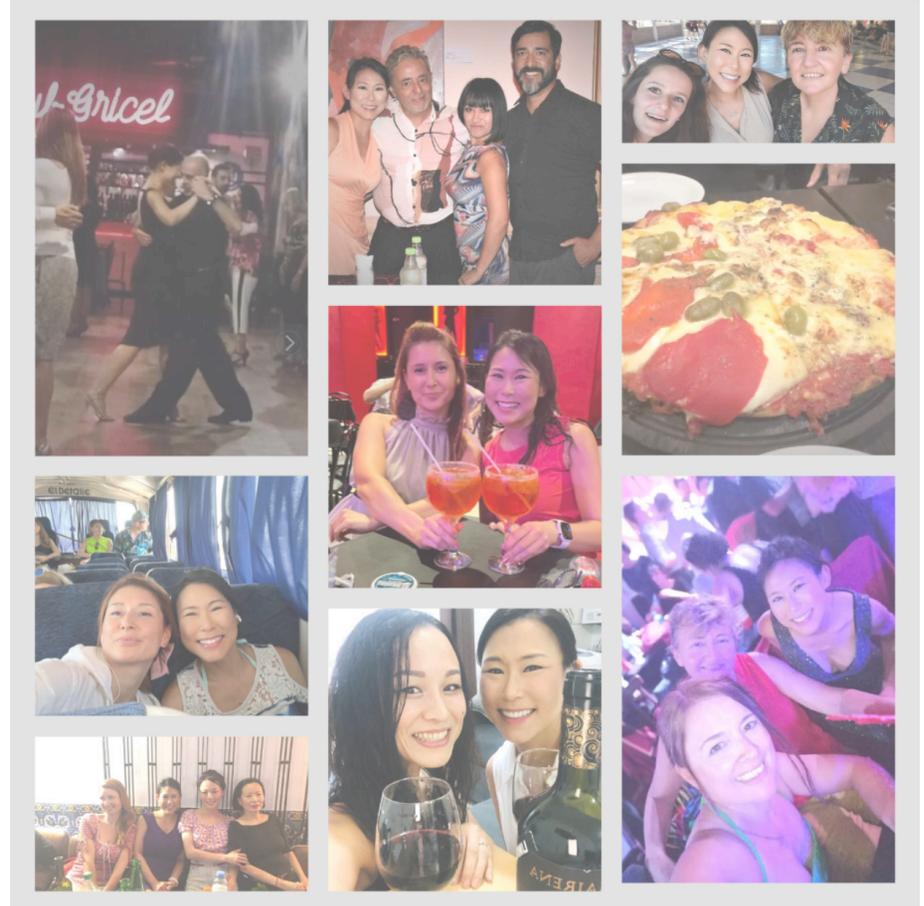
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서 같이 화를 내볼까 생각해 봤지만, 그것도 모양 빠지는 일이라 포기한 게 몇 번이었다.

레슨을 받는 동안은 춤추러 밀롱가에 가는 것을 삼가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그래도 본토박이들은 도대체 밀롱가를 어떻게 즐기는지 너무 궁금해서 hoy-milonga.com을 통해 매일 있는 밀롱가들의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관광지 구경하듯 이곳 저곳의 밀롱가들을 다녀보는 것이 삶의 액센트가 되었다. 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매일 열리는 밀롱가의 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각기 다른 분위기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넓은 연령층, 항상 있는 탱고 오케스트라나 작은 앙상블의

다. 유튜브로만 감상했던 유명한 분들의 공연을 눈 앞에서 보는 짜릿함은 지금도 생각해도 전율이 인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3주가 훌쩍 지나가고, 한 달을 예정하고 왔던 나의 일정이 얼마나 낙관적인 기대였던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귀국 날짜를 조금씩 미뤄가면서 레슨을 더 받았고, 또 더 많은 밀롱가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숙소도 옮기게 됐는데, 그 때 즈음에는 이사를 도와 줄 친구들도 생겨 점점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르헨티나 고산 지역에서 만들어진 말벵 와인을 맛보겠다고 떠났던 멘도사 여행에서도 몇몇 밀롱가에 가면서 점점 현지 탱고 생활이 익숙해져갔다. 음식도 입에 잘 맞아 몰라서 안 먹어본 음식은 있어도 먹어봐서 맛 없



이주희 동문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탱고 배우기 석달 살이를 하면서 사귄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

연습하고 야단 맞고 다시 연습하며 눈물 ‘짙끔’ 시간 지나며 음식, 친구, 춤으로 ‘행복한 나날’

라이브 연주, 멋진 탱고 공연, 이 모든 것들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천국같았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보았던Muy Lunes라는 밀롱가는 캐주얼한 밀롱가였다. 반바지, 티셔츠 차림의 젊은이들로 가득찬 밀롱가의 구석에 앉아서 마치 탈북자가 아이돌 콘서트에 간 마냥 신기하게 구경을 했다. 새벽 2시쯤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나 나오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같이 추자고 했다. 내가 ‘초급자(principiante)’라고 계속 경고를 해서인지 착하게도 잘 맞춰 주었다. 춤을 춘 뒤 얘기를 해보니 내가 그리도 배우고 싶어하는 반도네온을 연주하는 음악가였다.

이렇게 해서 내게는 탱고 선생님 뿐만 아니라 반도네온 선생님도 생기게 되었다. 적어도 반도네온 선생님은 무섭지 않아서 좋았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반도네온을 사는 것은 꽤 비싼 편이어서 선생님 조언에 따라 운지법을 연습할 수 있는 반돌리카라는 기계를 사서 혼자 연습했고 어느 순간 Juan D'Arienzo의 Hotel Victoria라는 곡을 제법 연주할 수 있게 됐다.

탱고나 반도네온 레슨이 없는 날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고, 밤에는 새로운 밀롱가 탐방을 다녔

었던 음식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이 나라의 피자는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다섯 가지 안에 들 정도였다.

하나 둘 친구들이 생기면서 어느정도 규칙적인 일정도 생겨났다. 각 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달랐고, 그동안 돌아봤던 밀롱가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생겨서 주로 가게 되는 밀롱가들은 organizer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자리를 예약하곤 했다.

친구들 중에는 밀롱가에서 만난 게이 친구들도 있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녔다면서 뜬금없이 애국가를 불러서 내 눈을 적셔버린 파란 눈의 친구도 있고, 나처럼 예약 없이 밀롱가에 갔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구글 번역기를 통해 우정을 키우게 된 러시아 친구, 탱고 신발 사러 갔다가 서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해져서 매일 같이 서로의 스케줄을 챙겨주는 사이가 된 프랑스에 사는 일본인 친구, 자기가 가르치는 탱고 클래스에 짝수가 안 맞는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해서 친해지게 된 친구 등등,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diversity를 느끼며 생활하게 되었다.

카카오톡 대신 Whatsapp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고, 실외에 나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내가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평생 처음 pool

party에도 참석해보고, 에어컨 없이 땀 뻘뻘 흘려야 하는 야외 밀롱가에도 주기적으로 다니게 되었다.

남반구에서 세 달 넘게 지내면서 느낀 것들 몇 가지:

1. 남반구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는 걸 그곳에서 생활한 지 2주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 동안 새로운 도시로 여행할 때 마다 빌딩 그림자를 보고 동서남북을 따지던 나로서는 첫 2주간 얼마나 혼돈상태에서 지냈던지, 특히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특정방향으로 가야할 때 빌딩 그림자를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당당하게 걷다 보면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거의 자괴감에 빠질 지경이었다.
2. 오며 가며 몇 번 보고 긴가 민가 했던 스낵, 강냉이(‘뚜뚜까’) 같은 모양, 다른 맛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진짜 강냉이다. 그것도 커다란 패키지 한 봉지에 800원(66센트)정도. 동네 강냉이를 씹을 이 하고 다니는 동양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날까봐 사흘에 한 번 정도로 강냉이 사재기를 자제하곤 했다.
3. 택시기사의 운전실력이 한국 기사분들에 뒤지지 않는다. 우회전 해야 할 곳이 다가오는데도 전속력으로 도로 좌측을 달린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걱정을 내려놓았다. 종이 한장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스무스하게 스르르륵, 목적지에 예정시간 보다 훨씬 빨리 내려 준다.

4.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더위를 잘 견디는 것 같다. 아르헨티나의 여름인 1월, 2월은 덥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습도도 높은데,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지하철이나 버스, 음식점은 50% 미만인 듯 하다. 그럴 땐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무더운 여름날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해주던 말씀이 참 도움이 됐다. "가만히 있어봐. 안 더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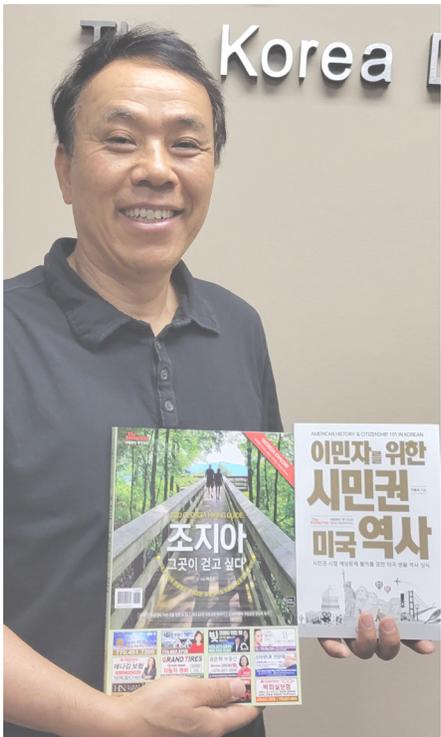
5. 커다란 확성기에 대고 뭐라고 공고를 하는 듯한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나중에 보니 고철이나 고가구 사는 분들 같은데,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듯 하다. 그 톤이 거의 "계란이~왔어요~" "참쌀~떡, 메밀묵!" 그리고 "세~탁~"을 묘하게 섞은 느낌이다. 정겹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적응해가면서 귀국 날짜를 야근야근 연장하던 나는 비자 없이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인 90일을 하루 넘기고 돌아오게 되었고, 4월이 되어서까지도 문 앞을 지키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제야 접어 정리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3개월을 회상하며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소리내어 웃고, 또 눈물 고이게 친구들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행복할 자신이 있던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지기 위해 다시 한 번 텔타 앱을 연다. Pugliese(탱고음악의 거장)의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도 질리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종호 동문, 조지아 답사기 · 미국 역사 책 동시 출간



이종호 동문이 이번에 출간한 두 권의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 하이킹 가이드 ‘그곳이 걷고 싶다’ 시민권 문제 풀이 겸한 ‘시민권 미국 역사’

이종호 동문(동양사학과 81)이 최근 2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했다. 하나는 애틀랜타 유일의 한글 하이킹 가이드 ‘조지아, 그곳이 걷고 싶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자라면 꼭 알아야 할 미국 역사 생활 상식을 정리한 ‘시민권 미국 역사’다.

‘그곳이 걷고 싶다’는 이종호 동문이 애틀랜타 중앙일보 대표로 부임 이후 2년 여 동안 조지아주의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바다, 섬 등 42곳을 직접 걸으면서 직접 찍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정리한 답사기다. 1부 조지아 관광 명소 13곳, 2부 유명 조지아 국립공원 16곳, 3부 걷기 좋은 주변 하이킹 명소 13곳 등 모두 조지아주 42곳을 소개했다. 권말 부록으로 수록한 애틀랜타 도심 근교 명소 25곳과 한눈에 보는 조지

아 48개 국립공원, 미국 63개 국립공원 이야기도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요긴한 정보다.

“가는 곳마다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읽으며 지역의 역사와 풍물, 사람들의 일상까지 담아내려 했다”는 이 동문의 말처럼 다른 여행 안내서와 달리 단순히 지역 소개에 머물지 않은 여행기이자 견문록이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민권 미국 역사’는 시민권 시험 문제 풀이를 겸한 미국 역사 상식 책이다. 미국 역사에 관한 책은 많지만 대체로 너무 전문적이거나 세분화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에 비해 이 책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든 주요 사건과 제도, 상식 등을 20여 개 큰 주제로 나눠 쉽게 정리했다는 것

이 돋보인다. 일상에선 자주 접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배경 차이로 이민자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 생활 용어 미니 사전도 유용하다.

이종호 동문은 LA 중앙일보 논설실장, 편집국장을 역임한 후 2021년부터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를 맡고 있다. 논설 에세이집 『그래도 한국이 좋아』, 명언 에세이집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역사 교양서 『세계인이 놀라는 한국사 7장면』 등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이번에 나온 책은 모두 한국 교보문고나 예스24등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애틀랜타 중앙일보(주소: 2400 Pleasant Hill Rd. #210, Duluth, GA 30096 / 문의 770-242-0099 Ext.2013)에서 구할 수 있다.

‘그곳이 걷고 싶다’는 권당 20달러이며 비영리 단체 ‘좋은 이웃되기 운동’의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발간된 ‘시민권 미국역사’는 무료다. (우편 주문시 우송비 별도).

우리 땅 ‘독도’, 왜 동해의 보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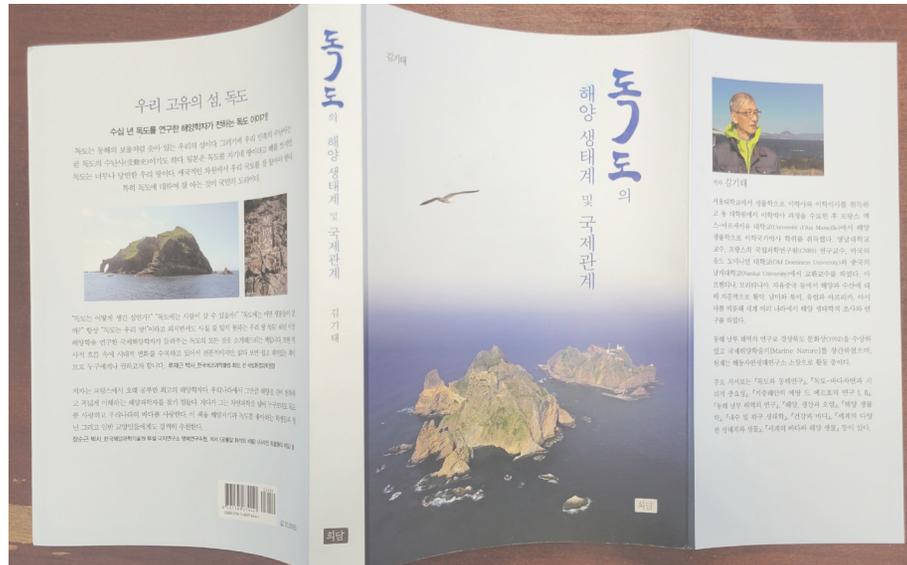
“독도는 우리 땅.” 누구나 외치는 말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곳이 또한 독도다. 하지만 적절한 책 한 권만 읽어보면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왜 그렇게 ‘우리 땅’임을 외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평생 한국 바다를 연구해 온 해양학자 김기태 교수가 펴낸 ‘독도의 해양생태계 및 국제관계’ (2023, 희담)가 바로 그런 책이다.

이 책은 독도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김기태 동문이 평생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담아낸 대중 교양서다. 저자가 직접 찍은 독도의 동식물, 자연에 관한 다양한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독도 바다의 생태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쉽게 서술했다. 또한 근현대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변화를 겪어온 독도에 대한 역사 인식 문제까지 기술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독도 문제에 있어선 진보나 보수, 지역감정,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최전방의 보루이기 때문이지요.”

수십년 연구해 온 해양학자 김기태 동문의 독도 이야기



독도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최전방의 보루이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며 독도 교육이 좀 더 공고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

서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와 독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들이 결실을 맺어 독도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우리 땅임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저자 김기태 박사는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64학번)를 거쳐 프랑스에서 해양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남대 교수로 봉직하며 40년 이상 한국 바다에 대해 연구했다. 은퇴 후에도 해동자연생태연구소장으로 우리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꾸준히 매진하고 있다.

책은 예스24, 교보문고 등 한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미국에선 책의 가치에 공감한 저자의 동기생들이 나서서 보급하고 있다. 이메일 ingtu-sa@gmail.com 또는 전화 818-631-7232(김용찬)로 문의하면 실비에 구할 수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교류하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세요.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백세인 따라하기 ...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정재훈
(약대 93)

지난달 17일 미국의 초백세인 루이스 레비가 112세로 사망했다. 레비는 장수와 유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대상이었던 700명이 넘는 사람 중 하나였기에 여러 해외 언론에서 그녀의 사망 소식을 다뤘다.

백세인은 점점 늘고 있다. 1990년 전 세계 9만5000명에서 2015년에는 4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10세를 넘겨 사는 초백세인은 매우 드물다.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초백세인은 500명을 넘지 않는다.

초백세인이 그저 수치상으로만 장수하는 건 아니다. 이들은 질병 없이 오래 산다. 112세까지 살면서도 레비는 심장질환·당뇨병·알츠하이머병을 앓

지 않았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뭐였을까. 레비 본인은 긍정적 태도, 저콜레스테롤 식단, 하루 한 잔 레드와인을 마신 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장수인의 유전적 특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과학자 니르 바질라이는 유전자에



소식은 장수 비결이다. 적게 먹을 수록 영양 균형이 중요하다.

답이 있다고 설명한다.

레비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일원이었는데 이들은 유전 변이 덕분에 노화가 늦춰지고 심장병·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도 낮아지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중 60%가 흡연자, 50%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데 질환 위험은 낮게 나타나는 건 유

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흡연하든 운동을 안 하든 과체중이든 괜찮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장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도 바꿔줘야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 백세인은 따로 소식하지 않아도 칼로리 제한 식단을 하는 사람과 비슷한 몸 상태를 유지한다.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으로 섭취 열량을 줄여주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는데 장수 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부럽다. 하지만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게 먹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뿐이다. 다만 이렇게 적게 먹을 때는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영양소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활동량을 늘리는 건 좋지만 낙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루이스 레비가 사망한 것도 엉덩이관절 골절 때문이었다. 수술과 재활 뒤에 감염이 발생하며 쇠약해진 것이다. 고관절 골절로 누워있는 동안 근육은 줄고 대사기능이 떨어지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쉽다. 회복 뒤에도 다시 골절을 겪게 될 위험이 크다.

과학자들은 백세인, 초백세인의 유전자를 훑내 내어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약 없이도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정재훈 동문은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약사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현 CPS의 전신인 Bridging Program을 수료했으며, Shoppers Drug Mart, Pharma Plus, Wal-Mart, Main Drug Mart 에서 약사 및 약국 매니저로 다년간 활동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는 경기도 분당에서J정약국을 운영하며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 ‘정재훈의 식탁’ 등 저서도 출간했다.

여름철 고온증, 생명 위협할 수도



박진국
(의대 65)

지구 온난화로 섭씨1.5도 이상 오르는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올해는 이미 북반부 엘니뇨 현상이 이른 봄부터 시작되었다. 북미주는 많은 강우량으로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했지만 여름이 되면서 눈 녹은 물로 인하여 홍수와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국립공원이 폐쇄됐다. 또 사막화, 태풍, 산불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반세기 가까이 설마했던 이산화탄소-온실효과로 지구 기상 변화가 현실화 되었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기후 변화로 고온증에 대한 이해가 절실해졌다.

고온증(Hyperthermia 열중증, 고열증)은 외부에서 오는 열로 인해 신체 내부 체온 조절기능 상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오르는 것이다. 여름에 더운 날씨를 피해 산으로 간다해도 태양의 직사광선이 강하여 바람과 습기가 돕지 않으면 체온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체온의 위험 수치는 화씨 105도 이상이면 위험한데, 야외 활동을 하면서 체온의 변화를 느낄 수 없고 측정도 쉽지 않다. 고온증 증상은 전부가 애매한 전신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통, 무력감,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얼굴 홍조 등이며 두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식이 희미해지고 발작이 일어나며 이미 생명에 위협한 단계이다. 많은 경우 고온증 환자에서 근육 경련이 나타난다. 적절한 응급 치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증치료법으로 효과가 빠른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고온증은 군대, 선수촌, 스카우트(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잼보리) 같은 집단 훈련에서 생길 수 있는데, 최소한 2주 이상 적응훈련(Acclimatization)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50년 전 한국에서 필자가 공수부대와 대구 51사단에 3년

간 근무하던 중 고온증 군인이 들어와 급히 후송했으나 이를 후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접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적응 훈련을 계획하게 되었다.

25도 이상인 날은 경보병 훈련을 하지 말고 메는 집을 절반 이하로, 거리도 절반 이하에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적응 훈련을 2주에 걸쳐 시행한 결과 훈련병 1200명 1개 여단 규모에서 의무실로 들어오는 숫자가 30명 이상에서 0명으로 줄인 경험을 가졌다. 이로 인해 고온증에 대해 의사로서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산행이 취미인 필자는 10여 년 전 그랜드캐년을 노스립에서 사우스립으로 22마일 하이킹을 한 적이 있다. 6월이었는데 콜로라도 강가는 화씨 110도가 넘었다. 트레일 중간에 레인저가 하이커들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었고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았다. 레인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평소같이 고온증이요(As usual, Hyperthermia)”라 대답했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고온증 위험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필자 또한 고온증 증세로 휴게소에서 2시간 동안 낮잠을 잔 후에야 사우스립 정상에 도착했다.

고온증 치료는 탈수, 열경련(heat cramp) 치료, 체온 하강 치료, 긴급 후송, 중환자 치료가 있다. 탈수는 생리 식염수 0.9% 소금물, 전해질이 있는 게토레이가 좋으나 일반 식수로도 가능하다. 경련은 마사지, 스트레칭, 침술 등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특히 재발 가능성이 높아 효과 빠른 진통제, 아이브로펜 800mg으로 6시간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온 하강법은 응급시 시원한 바람 직접 쐬기(Flow directed cold air on naked body), 즉 선풍기를 사용한다. 병원에서는 얼음을 머리, 목, 겨드랑이 등 온몸에 넣어 체온을 100도까지 내린다. 그 외 차가운 물을 흘리거나(water-run)과 심폐정맥투석 쿨링 방법을 쓴다.

사람 체온이 섭씨42도를 넘어 72도까지 올라가면 효소 단백질이 분해되어 저온일 때보다 고온에 더 취약하다.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여러 현상 중 하나인 고온증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이 요구된다.

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 시 체감온도, 바람, 습도를 고려하고 흰색 옷으로 전신을 덮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고온증을 예방할 수 있다.

국립공원 객원 화가로 초대 받은 홍건(의대 64) 동문 “호숫가 해 뜨고 지는 풍경 그린 건 귀한 경험”

일찍 은퇴를 하고 에티오피아로 갈 때 현지에서 뼈를 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자녀들을 길러왔던 보금자리인 큰 집을 팔고 시카고 다운타운의 1베드짜리 작은 콘도로 옮겼다.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한 것이었는데 5년 만에 에티오피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 사는 집이 되었다.

좁은 집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힘들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집에서 가까운 유서 깊은 Palette and Chisel Academy of Fine Arts 라는 곳의 회원이 돼 시간이 나는 대로 그곳에 가 그림을 그렸다. 그곳에서 화가 친구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차츰 발을 넓혀가면서 Plein Air Painting이라고 밖에 나가서 야외 사생을 하는 그룹에도 참가를 하게 되었다.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시카고 다운타운이 워낙 금싸라기 같은 곳이라 비싼 임대료를 내려고 해도 방이 나온 것이 없었다. 마침 멀리 인디애나주의 미시간시티라는 곳에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된 뒤 학교를 화가들에게 화실로 제공하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고 얼른 계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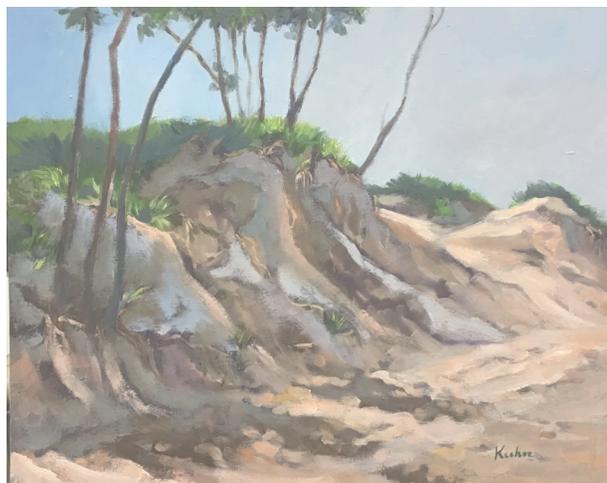
운전을 하면 편도에 한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먼거리였지만 South Shore Line 이라는 통근기차가 있어 편하게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보면서 갈 수 있는 방도가 있어서 매우 편하게 날씨에 관계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인디애나주 북쪽에 미시간호수를 끼고 모래사장과 모래언덕을 이루는 아름다운 Indiana Dunes National Park 에서 Artist-in-Residence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흥미를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곧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사진 찍고 USB 에 올려서 우편으로 보내고 결정을 기다렸다.

물론 미술 대학을 나오거나 전업화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아마추어로서 응모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드디어 미국 내무부로부터 공식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공식 통보를 편지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에 들어갔다.

담당자에게 아내와 같이 가서 있어도 좋으냐고 물었더니 안된다. 혼자서 2주일 동안을 지내야 하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면과 간단한 밑반찬을 챙기고 빨래는 하지 않고 선교지에 갈때 처럼 임시로 지내는 것같이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욕심은 많아서 하루에 두 장 이상씩은 그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캔버스를 충분히 마련했고, 혹시나 하면서 수채화와 파스텔 도구도 모두 준비를 했다.

드디어 7월 21일 금요일 모든 짐을 차에다 싣고 소풍가는 어린이 마냥 들뜬 기분으로 차를 몰고 Porter 라는 동



인디애나 둔스 국립공원 객원화가로 초대받은 홍건 동문이 호숫가 비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홍건 동문의 그림.

그랜드 캐년 등 국립공원 20여 곳서 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 운영

네의 Indiana Dunes National Park Visiting Center 로 향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인턴 Joe 가 운전하는 정부 자동차를 타고 호숫가에 있는 명소를 돌리기로 했다. 주차장에 가서 2주일 동안 쓸 주차 허가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2주 동안 묵게 될 숙소에 도착하였다.

국립공원 산 속 한복판에 위치한 숙소는 오래전 개인집으로 쓰던 곳을 기증받아 화가들이 임시로 묵을 수 있게 한 곳으로 여름동안 공원에서 잔디 깎고 모든 잡일을 하도록 고용된 Jim 이라는 나이든 분이 테네시주에서 올라와서 같은 집안의 다른 방 하나를 쓰면서 도와주게 되어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도 않고 간단한 문제는 금방 해결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방은 원래 master bedroom 으로 호텔 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화장실이 방안에 따로 있고 작은 Twin bed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자는 숙소에서 작업을 하기에

는 조명 시설이 너무 어둡고 바닥에 유화 물감을 떨어뜨릴까 걱정이 되어 미시간시티에 있는 내 아뜰리에에 가보니 불과 8 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길에 15분이면 도착 할 수 있기에 밖에서 야외 사생을 하는 것 외에는 모든 작업을 내 방에서 하기로 했다.

Jeff 와 Joe 가 알려준 호숫가의 공원국들을 하나씩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왕 해변에서 가까운 숙소에 묵는 김에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가까운 Central Beach 에 가서 해가 뜨는 일출을 그리고 저녁 8시에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가 지는 석양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제일 인상에 남을 일이다.

물론 순식간에 해가 뜨고 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사진작가에게도 힘든 일인데 캔버스에 담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지만 실시간으로 변하는 풍경을 캔버스뿐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간직하는 귀한 경험은 두고 두고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첫 주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Chesterton 이라는 동네에 있는 Open Bible Church 에 가서 시골의 검소한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주보에 그날 오후 교인들을 초대해 해변을 걷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소식이 적혀 있어 주중에 찾아가면 해변에 주차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는 표정이었으나 곧 자기의 전화번호를 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 보니 국립공원이 아니고 개인 집들이 뜨엄 뜨엄 흠어져 있는 조용한 동네에 비싸보이고 아름다운 저택들이 많은 Dunes Acres 라는 곳에 위치하였다. 자기가 사용하는 주차 허가증을 빌려주고 직접 해변의 주차장까지 안내하여 고맙게도 사람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가끔 지나가는 그 동네 부자 같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해오면 그림 그리던 것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왔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집에서 떨어져 있는 2주 동안 테네시에 사는 딸이 아내와 함께 찾아와 하루는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하고 같이 여러 곳을 둘러 보았다.

마지막 날 아침에 열쇠를 반납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에서의 객원 화가 2주 과정을 마쳤다.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준 국립공원 당국에 감사한다.

객원 화가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 국립공원 중 20여 군데서 하고 있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랜드 캐년이나 스모키 마운틴 같은 데도 응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필요하다면 도와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시카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가게 되면 모든 그림 도구나 캔버스를 차에 싣고 가야 하고 배우자를 같이 있게 하는지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하기에 선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번 한번일지라도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선발되어 많은 혜택을 누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린 추억만으로도 감사할 뿐이다.

이제 처음 약속대로 그곳에서 2주 동안 그린 작품들 중에서 한 점을 액자에 넣어 증정을 하면 영구 보존하고 2년 정도 마다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도 하고 Visiting Center 한쪽 면에 돌아가면서 작품을 걸어 놓는다고 하니 그동안 그린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가서 기증을 하려고 한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630-854-9246/kuhn_hong@yahoo.com)를 해주거나 Be an Artist-in-Residence - Arts in the Parks (U.S. National Park Service) (nps.gov)으로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기를 권한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는 2025년 대학 종합화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혁신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서울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SNU+50 미래전략 기금

SNU+50 미래전략 기금은 다가올 미래, 서울대의 50년을 준비하는 기금입니다. 학교 발전과 비전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SNU+50 미래전략 기금은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SNU 교육혁신 프로젝트 기금

학부대학을 설립하여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울타리를 넘나들며 토론하는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헌 의식이 성장할 것이며, 삶을 공유하는 기숙대학을 통해 더욱 성숙해 갈 것입니다.



※ 사진출처 : ©서울대학교 사진갤러리

서울대학교 국제 랭킹

서울대학교는 거례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QS 세계대학 평가 29위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



세계 50위 이내
 (37개 학과, 2023년 발표)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50 미래전략 기금 간단 참여신청서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 정 금 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챗GPT 능력 놀랍지만 추론 능력도 갖고 있을까



송명국
(철학과 90)
캘스테이트 롱비치 교수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언어 번역 등의 영역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를 바꿔 놓을 파괴적 기술로 평가되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은 최근 까지 약한 또는 좁은 AI라 불렸다.

바둑에서 이세돌 프로를 꺾은 알파고와 같이 특정한 과제만을 수행할 수 있는 좁은 AI는 어린이 수준의 기본적인 추론 능력도 갖추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그림에서 사람과 동물 중 누가 더 많은가, 블록탑에서 가장 위쪽 블록을 제거하면 탑이 무너질까 등에 대한 질문에 AI는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모델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이제 AI가 인간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반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챗GPT는 약 1750억개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가진 GPT-3.5에 기반한 모델이고 2023년3월에 출시된 GPT-4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파라미터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T-4는 언어 이외에 이미지도 인식할 수 있는데 아이폰 충전 포트에 VGA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면, 작고 현대적인 스마트폰 충전 포트에 크고 오래된 VGA 커넥터가 꽂혀있다는 부조리함이 재미있다고 답해 한층 발전된 능력을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이 책, 9개의 달걀, 노트북 컴퓨터, 병, 못을 안정적으로 쌓는 방법을 문자 GPT-4는 책 위에 달걀을 3x3 그리드로 배열하고 노트북을 그 위에 올려 놓으면 노트북의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이 다음 층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해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다. GPT-4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공지능 반지능을 향한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AI의 능력은 놀랍기는 하지만 AI가 추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좁은 AI는 블록탑에서 가장 위쪽 블록을 제거하면 탑이 무너질까 하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



GPT-4는 이미지 인식도 가능해서 아이폰에 연결된 VGA커넥터가 잘못됨을 인식했다.

확률적 문장 생성 구조로 인해 잘못된 문장, 환각 문제 일으켜

챗GPT와 같은 현재의 언어모델은 주어진 단어들을 기반으로 가장 적당한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인다”는 문장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속삭인다”는 문장보다 문법적으로 올바를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고, “별들이 밤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문장이 “태양이 밤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다”는 문장보다 상식에 부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문맥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를 집어 던진 사건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챗GPT의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문장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뉴욕의 변호사는 챗GPT가 생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문서에 인용된 법률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판사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따라서 AI가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데, AI는 ‘단

지’ 다음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일 뿐, 추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단어나 문장을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은 추론 능력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실존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의 능력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딥러닝과 같이 복잡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블랙박스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대규모 AI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언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을 수도 있는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적절하게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AI의 추론 능력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학습 데이터의 오염 문제이다.

AI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어, 학습과정에서는 학습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훈련된 알고리즘의 성과를 측정할 때는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한다. 검증용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데이터 오염이라 부르는데, 챗GPT와 같이 수천억 또는 수조개의 파라미터와 다양한 언어의 대규모 텍스트에 기반하여 학습된 AI의 경우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무수히 많은 소스에서 비롯된 데이터를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눈다 해도, 검증 데이터의 일부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AI 모델이 변호사 시험, 수학 시험, 코딩 대회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지만 테스트 문제들이 이미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었음이 드러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교사가 제공한 연습문제가 그대로 시험문제에 출제되었을 경우, 정답을 맞춘 학생이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AI의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에는 과장된 면이 있고 아직은 그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나날이 발전하는 AI가 제기하는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한 함의들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명국 동문은

- 철학과(90) 학사, 석사
- 로체스터 대학 MBA
- 텍사스A&M 박사(마케팅)
- 캔자스 주립대 조교수
- 캘스테이트 롱비치 경영대학 교수(현)
- 마케팅 애널리틱스 석사과정 디렉터
-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전략, 국제경영 전략
- 이메일: reo.song@csulb.edu



김학천
(치대 70)

티라미수 ‘한 입의 행복’ … ‘Stress No for Us!’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이로부터 세상 창조를 시작으로 여섯째날 사람을 만드시고 쉬셨다.

무척이나 힘드셨을 게다.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았을테고. 그래서 그랬는지 휴식후 아담에게 일을 하나 맡기셨다.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로부터 천지만물은 모두가 이름을 갖게되고 나를 주어진 제 몫을 하게 됐지만 존재가 그 이름 값대로 인식되지는 않았는가 보다.

해서 김춘수 시인도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고 노래한 거겠지…

이는 상대를 인식해 주는 데서부터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인식은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 시작한다는 뜻일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 허나 이름도 이름나름일까? 자신의 이름 때문에 불리기 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도 많아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이름에 밝은 미래를 바라는 축원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해 개명하려는 걸 보니 말이다.

그러니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운명철학관을 찾아다니는게 아니겠는가. 허긴 하느님도 종종 이름을 불러 세워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물었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요셉 등의 이름을 바꾸어주기까지 했으니 같은 마음에서였을 게다.

헌데 근자에 이름을 바꾸거나 좋은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거니와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보면 삶에 끼치는 이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이라.

가뜩이나 스트레스에 억눌려 지내는 현대인. 해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

이지만 이를 피할 수 없다면 식후의 디저트 같은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다루라’라는 말까지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그런 의미에서 절묘한 이름의 디저트 하나가 있다. 기실 ‘디저트’는 식후에 ‘식탁을 치운다’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지만 오늘날 디저트는 단지 식사를 마무리하는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정찬을 완성하는 차원으로 제과기술은 물론 조각, 회화, 그리고 장식의 영역까지 총망라하는 종합예술의 경지에 이른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식사의 해피엔딩을 추구하는 코스라하면 지나친 얘기일는지.

암튼 그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디저트 중 하나인 티라미수는 이를 넘어 힐링의 의미도 있다.

끌어올린다는 뜻의 ‘티라레(tirare)’와 나를 의미하는 ‘미(mi)’, 위쪽을 가리키는 ‘수(su)’가 합쳐졌다는 티라미수는 ‘나를 기분 좋게 끌어 올린다’라는 뜻이란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종종 부르는 노래 ‘You raise me up’: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나의 영혼이 지칠때/…/내게로 와서/…/나를 끌어올려 주시네’와 헛갈리기도 한다. 해서 CCM 곡이나 아나나로 논란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그래서일까?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들 때 티라미수를 한 두입 먹다보면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기분이 든다고들 한다.

더 나아가 티라미수의 기분을 북돋우는 묘한 매력으로 한때는 허약한 임산부나 어린이, 그리고 환자 등의 원기 회복을 위한 보양식으로도 유명했다니 에너지 재충전 역할도 톡톡히 하는 셈이랄까.

그러고 보니 영어의 stressed를 거꾸로 읽으면 desserts가 되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우연만은 아닌듯하다. 왜? 태초에 하느님도 쉬시면서 깨달은 바 이렇게 말씀하셨을테니까.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트레스를 디저트로 뒤집어 평온케하라 할지니…’ 현대인에게 주는 수정계명 제1항이다.

이제 겨우 팬데믹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켤만하기 무섭게 때아닌 폭염으로 시달려야 하는 이때 티라미수 한 입에 커피나 와인 한 모금 곁들여 기분전환해보는 것도 어찌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는지…

‘Stress No for Us!’ 중얼대면서.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카우타우’ 가 뭐길래…

가깝게 지내는 동문의 딸은 아이비리그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다. 그림 솜씨 또한 프로 뽀빠 정말이지 재원이다. 직장 있는 곳은 할리우드. 해외에 진출하려는 영화사들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중국과 관련해 들려준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4년 전 쯤 중국 측 파트너를 LA로 초청해 디너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 것은 물론이다. 투자를 받으려면 중국인들의 환심부터 사야했기 때문일터.

그런데 이게 웬일. 중국 측 인사들이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시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으니 영화사 측은 초조했다. 다행히 중국인들이 뒤늦게나마 나타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칼자루를 중국인들이 쥐고 있어 불쾌했지만 참을 수밖에.

정작 놀란 것은 중국인들의 첫 마디. 비즈니스는 속 빼먹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떻게 하며 농구 얘기만 늘어났다.

LA 레이커스의 슈퍼스타 코비가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기 1년 전 쯤이다. 급기야 중국 측이 황당한 조건을 달았다. 코비를 만나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닌가. 아니, NBA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수로 코비를. 동문의 딸은 중국인들의 무례함에 질렸다고 한다.

미국에도 그러는데 다른 나라들은 오죽하랴. 대표적인 사례가 노르웨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10년 중국은 노르웨이와 관계를 끊었다. 중국정부와 아무 상의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걸 트집 잡아서다. 그것도 성에 안찼는지 오슬로 주재 각국 대사들을 겁박했다. 시상식에 참석하면 보복을 당할 줄 알라며.

그 뿐이 아니다. 이른바 ‘공자평화상’이란 걸 급조해 상금을 두둑하게 줬다. 노벨이 센가, 공자가 센가 단판승부를 벌였다고 할까. 결과는 공자가 이겼다. 노르웨이 정부가 두 손을 든 것. 중국과 교역이 끊기면 생존이 어려운

맛이다. 중국에 사과를 하고나서야 양국 관계가 정상으로 되돌려졌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외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카우타우(kowtow)’다. 한자로는 고두(叩頭) 즉, ‘머리를 조아리다’는 뜻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16번째 임금 인조가 삼전도 나루터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아홉번 조아린 굴욕을 떠올리면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한껏 예의를 갖춰 중국에 ‘카우타우’를 하라니.

얼마전엔 주한중국대사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틀을 하면 오판”이라며 한국을 압박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에 ‘카우타우’를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처럼 주변국들은 물론 유럽국가들 예까지 ‘카우타우’를 강요하고 있으니 중국에 대한 시선이 고올리 없겠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24개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결과 잘 사는 나라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본과 호주는 87%, 스웨덴 85%, 미국은 83%나 됐다. 한국도 2019년 63%에서 77%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이 높아졌다. 중국에 굴욕을 당한 노르웨이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알 수는 없었지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8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쯤되면 중국이 세계인의 뒎상으로 전략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중국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지난 6년 넘게 금지했던 중국인들의 한국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쓴웃음이 나온다. 한국경제에 다소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동안 중국의 유커(관광객)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참, 동문의 딸이 관여한 중국과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어찌 됐을까. 감히 누구한테 카우타우를 강요해? 중국의 갑질에 분노한 미국기업이 먼저 판을 열어 버렸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고평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흥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남가주 - 오드라 홍(음대70)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욕 - 김창수(약대64)
뉴욕 - 이정자(간호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55)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하트랜드 - 이상강(의대70)
하트랜드 - 김경숙(가정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인창(농대65)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이종묘(간호69)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길영(의대58)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2)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이호진(간호74)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경배(의대69)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효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영용(치대55)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영재(상대58)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취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재귀(미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최경선(농대65)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종권(의대63)
임필순(의대54)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트랜드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하와이

故최경윤(사대51)

알래스카

윤제중(농대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p>남가주</p> <p>강춘자 (간 69)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자 (미 60) 김난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범수 (문 61) 김성호 (법 64) 김순갈 (법 54) 김영덕 (법 58) 김용재 (문 61) 김일영 (의 65)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희창 (공 64) 노명호 (공 61) 나승욱 (문 59) 박명근 (상 63)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용 (문 89)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종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홍근 (공 64)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백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5) 손기용 (의 55) 송명국 (문 81)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양승문 (공 65)</p>	<p>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유이중 (농 74) 유석환 (치 55) 윤희성 (치 65) 이건일 (의 62) 이기준 (법 54)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현 (간 70) 김영호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일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우 (음 65) 박은규 (약 72)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선종철 (의 59)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유인숙 (간 63) 윤병남 (사 62) 이강욱 (공 70) 이중욱 (농 69) 이중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홍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p>	<p>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음 (공 55) 황현상 (의 55)</p> <p>뉴욕</p> <p>강상진 (의 53) 고애자 (음 57) 김승호 (공 71) 김영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영중 (치 66) 김학자 (간 59) 김해일 (의 52) 정상진 (상 59)</p> <p>미네소타</p> <p>성유진 이창재 (문 56) 주한수 (수 62) 황효숙 (사 65)</p> <p>미시간</p> <p>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이국화 (공 56) 이중욱 (농 69) 이중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홍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조득환 (의 61)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p> <p>북가주</p>	<p>강재호 (상 57) 김성철 (공 82) 김정희 (법 56) 남광순 (음 64)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흥기 (공 62) 임승래 (문 66) 전병련 (공 54) 정준민 (간 67) 조태우 (공 60) 최경선 (농 65) 홍병익 (공 68)</p> <p>샌디에고</p> <p>고경하 (공) 남장우 (사 56) 임춘수 (의 57)</p> <p>시카고</p> <p>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승주 (간 69) 김윤하 (공 66) 김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창욱 (공 56) 송재현 (의 45)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덕상 (치 62) 이건정 (공 69) 이동균 (공 75) 이시영 (상 45) 이유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전현일 (농 62)</p>	<p>최혜숙 (의 53) 황소나</p> <p>알라스카</p> <p>오레곤</p> <p>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p> <p>오하이오</p> <p>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이영웅 (의 57)</p> <p>워싱턴 DC</p> <p>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희주 (의 62)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신경은 (문 65) 우재형 (상 54) 유영진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영덕 (사 61) 이진상 (공 57) 임광록 (간 72) 조병선 (의 65) 정영자 (사 56) 천건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p> <p>워싱턴주</p> <p>김교선 (법 54)</p>	<p>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p> <p>유타</p> <p>김인기 (문 57)</p> <p>조지아</p> <p>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오경호 (수 60) 이중석 (의 54) 임수암 (공 62) 최덕순 (간 58) 한성수 (의 54)</p> <p>캐롤라이나</p> <p>커네티컷</p> <p>최창승 (의 52)</p> <p>테네시</p> <p>김경덕 (공 75)</p> <p>텍사스</p> <p>김장환 (공 81) 박태우 (공 64) 윤영주 (문 60)</p> <p>플로리다</p> <p>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서종민 (공 64) 정의철 (의 55)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하재청 (문 67)</p> <p>필라델피아</p> <p>강준철 (사 59)</p>	<p>성정호 (약 59)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정흥택 (상 61) 조정현 (수 58) 한수웅 (의 55)</p> <p>하와이</p> <p>김용수 (농 75) 김종국 (공 63) 하인환 (공 56) 최경윤 (사 51)</p> <p>하트랜드</p> <p>이상강 (의 70) 김경숙 (가 70)</p> <p>휴스턴</p> <p>진기주 (상 60) 최용천 (의 53)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p> <p>록키마운틴스</p> <p>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p> <p>에리조나</p>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p>일반후원금</p> <p>남가주</p> <p>임낙균 (약 64) 10,000 송영두 (공 59) 200 백옥자 (음 71) 200 한귀희 (미 68) 50</p> <p>뉴욕</p> <p>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우 (음 65) 200 윤철 (문 54) 200 허선행 (의 58) 200</p> <p>북가주</p> <p>이성원 (공 65) 200</p> <p>필라델피아</p> <p>최창승 (의 52) 500</p> <p>하트랜드</p> <p>이상강 (의 70) 41,000</p> <p>네바다</p> <p>김삼순 (상 67) 200</p> <p>미시간</p> <p>이성길 (의 65) 200</p> <p>커네티컷</p> <p>최창승 (의 52) 500</p> <p>샌디에고</p> <p>임춘수 (의 57) 300</p> <p>워싱턴DC</p> <p>박평일 (농 69) 500</p> <p>플로리다</p> <p>김중권 (의 63) 200</p> <p>휴스턴</p> <p>진기주 (상 60) 1,000</p> <p>테네시</p> <p>김경덕 (공 75) 200</p>	<p>업소록 후원금</p> <p>남가주</p> <p>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p> <p>뉴욕</p> <p>신응남 (농 70) 240</p> <p>장학기금</p> <p>시카고</p> <p>이용락 (공 48) 3,000</p> <p>뉴욕</p> <p>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p> <p>튀르키예 기부금</p> <p>남가주</p> <p>서진 (간) 3,000</p> <p>뉴욕</p> <p>신응남 (농 70) 200</p> <p>Brain Network</p> <p>뉴욕</p> <p>신응남 (농 70) 100</p> <p>광고후원금</p> <p>남가주</p> <p>미주재단 1,000 박수경 (생 84) 300 홍훈정 (음 70) 300</p>	<p>Website 광고</p> <p>남가주</p> <p>김자성 (의 79) 1,000 이상대 500</p> <p>Charity Fund</p> <p>필라델피아</p> <p>신익석 (공 53) 5,000</p> <p>평의원 회의</p> <p>남가주 평의원</p> <p>박종수 (수 58) 박윤수 (문 48) 오홍조 (치 58) 한홍택 (공 60) 노명호 (공 61) 김병연 (공 64) 최진석 (법 64) 한효동 (공 58) 홍성선 (약 72) 백정현 (음 66) 박해욱 (간 69) 임춘택 (상 68) 강호석 (상 81) 김인중 (농 74) 성주경 (상 68) 제영혜 (가 71) 민일기 (약 69) 백옥자 (음 71) 김경무 (공 69) 서치원 (공 69)</p>	<p>주준희 (문 72) 안혜정 (가 83) 이종묘 (간 69) 차중환 (사 54) 김승배 (음 82) 한귀희 (미 68) 이호진 (간 74) 김상찬 (문 65) 이영일 (문 53) 이채진 (문 55) 강미자 (음 62) 김자경 (가 60) 박인창 (농 65) 유혜연 (음 79)</p> <p>남가주 일반의원</p> <p>손영아 (음 85) 모원균 (공 89) 김중하 (음 85) 최용준 (수 81) 최정희 (간 72) 신복래 (문 83)</p> <p>뉴욕 평의원</p> <p>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성기로 (약 57) 금영천 (약 72) 허유선 (가 83) 박상원 (음 69) 이전구 (농 60) 이상근 (상 84)</p>	<p>뉴잉글랜드 평의원</p> <p>윤상래 (수 62) 김용구 (공 66)</p> <p>미네소타 평의원</p> <p>용정식 (농 86) 박미연 (농 94) 양한승 (농 89) 황효숙 (사 65)</p> <p>미시간 평의원</p> <p>이광진 (공 81) 장병진 (공 81)</p> <p>북가주 평의원</p> <p>최경선 (농 65)</p> <p>시카고 평의원</p> <p>황치용 (문 65) 김동희 (공 66)</p> <p>워싱턴DC 평의원</p> <p>정세근 (자 82) 남욱현 (상 84) 박평일 (농 69) 한정희 (미 81)</p>	<p>커네티컷 평의원</p> <p>김창수 (의 54) 안선숙 (가)</p> <p>커네티컷 일반의원</p> <p>유은주 (문 68)</p> <p>필라델피아 평의원</p> <p>손재욱 (가 77) 이만택 (의 52)</p> <p>하트랜드 평의원</p> <p>이상강 (의 70) 임소연 (음 91) 이주현 (미 92) 김경숙 (가 70)</p>
---	--	---	---	---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jun@junchangcpa.com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경우 (수익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희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익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익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익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익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2/7~2024/6, 2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종수(수) 김병연(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박창규(약)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안혜정(가)/함은선(음, 워싱턴DC)
홍보국장: 김승배(음)
행사국장: 주준희(문)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해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연(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임항균(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외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동(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성(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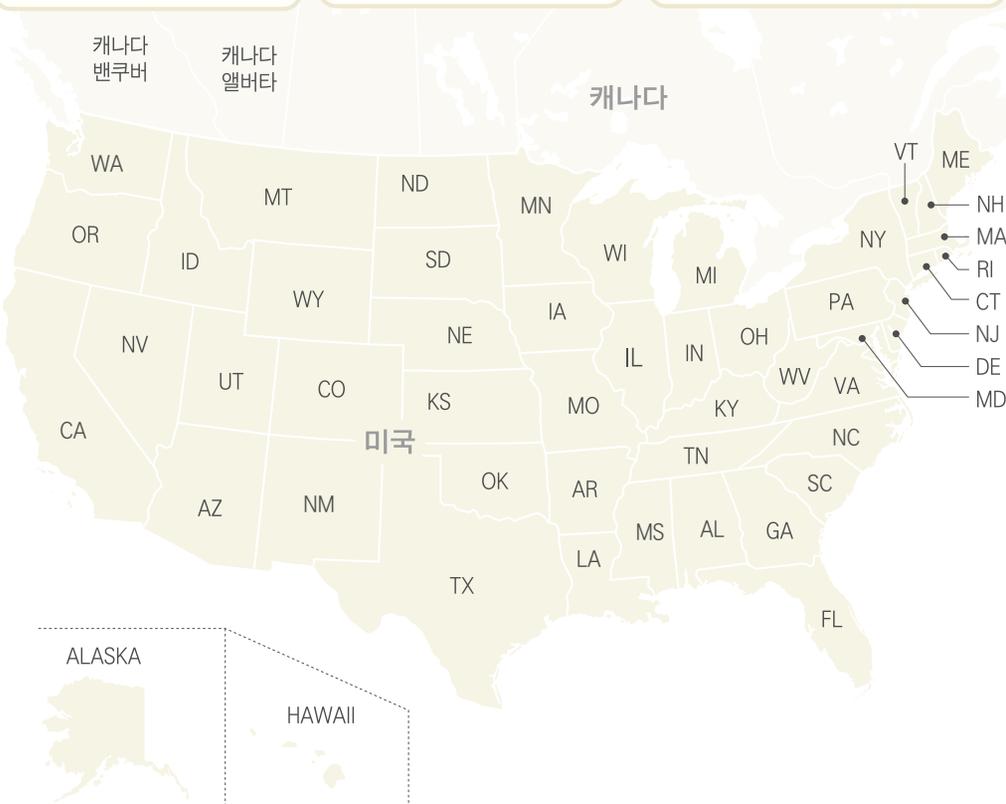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 98) (310) 689-6366
syecom@vols.utk.edu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유원(언론정보 74)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홍헌정(음대 70)



DIAMOND GLOBAL ESCROW, INC

- (818) 402-2005
- (909) 860-3333
- (909) 860-3330
- audra.hong@diamondage.com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이병준 (상대 55)

